

# 한 · 중 FTA에 대한 전라북도 대응방안

2010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한·중 FTA에 대한 전라북도 대응방안 / 이강진, 이민수,  
김시백, 김민경.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p. : cm. -- (Jthink ; 2010-PR-25)

참고문헌 수록  
권말부록: 전북의 수출액 ; 전북의 수입액 ; 중국의 한국  
제품 수입관세율  
ISBN 978-89-6612-029-1 93320 : 비매품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  
한중 무역 협정[韓中貿易協定]

326.2911012-KDC5  
382.9519051-DDC21

CIP2011001424

## 연 구 진

---

연 구 책 임 이 강 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이 민 수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시 백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민 경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

연 구 자 문 송 재 훈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과 교수  
양 병 우 •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어 명 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환 우 •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장 상 규 • 한국 무역협회 전북지부장  
김 주 완 • 전북도청 민생경제과 전문위원  
김 중 기 • 전북도청 농업농촌과 FTA 담당  
신 원 식 • 전북도청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 담당

---

연구관리 코드 : 10JU3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칠레, 미국, EU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 일본, 호주 등 향후 무역협정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FTA가 체결되어 무역과 투자 장벽이 제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중 FTA는 한국의 농수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이 분포하므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뿐 아니라 기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방향설정과 FTA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safety net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한·중 FTA는 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시 2년간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O)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민간공동연구를 거쳐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5차 회의를 거쳐 2010년 5월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양국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데 합의하였고, 2009년 10월 북경에서 서명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간 2,000억불 교역목표 조기 달성과 2015년 3,0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합의사항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공동연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은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경과이다.

〈표 1〉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경과

회의	협의 내용
한·중 통상장관회담 (2006.11월, 하노이)	• APEC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 당시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합의
1차 회의 (2007.3월, 베이징)	• 공동연구 운영세칙,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 확정
2차 회의 (2007.7월, 서울)	• 상품 분야 보고서 초안 논의
3차 회의 (2007.10월, 중국 웨이하이)	• 서비스, 투자 분야 보고서 초안 및 미합의된 총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논의 - 총론 및 서비스 분야의 보고서를 완결하고 제조업 및 투자 분야 보고서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 도출
4차 회의 (2008.2월, 제주)	•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재권, 경쟁, SPS, 경제협력 등 8개 분야 문안 합의 • 농림수산업에 대한 한·중 FTA의 영향, 민감 분야 보호 방안 등 쟁점 분야에서는 상호 이해를 제고
5차 회의 (2008.6월, 베이징)	• 농림수산업 분야, 결론 및 권고, WTO 대중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잔여 쟁점 논의 • 향후 FTA 협상 시 범위는 우리 측 제안대로 지재권, 경쟁, 정부조달 등을 경제협력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분야로 다루는데 합의
한·중 통상장관회담 (2010.5월, 서울)	• 산관학 보고서 문안 최종 합의

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관학 공동연구에서 제시한 FTA 분야별 주요 쟁점으로는 1) 중국 수출의 급증과 경쟁력 향상, 2) 중국제품의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지속적 향상, 3) 한국의 산업구조의 중국 편중성, 4) 무역수지와 FTA에 대한 인식, 5) 한중간 관세율의 차이, 6) 비관세장벽 이슈, 7) 중국의 투자유치정책 기조의 변화를 들 수 있고, 농축산업 분야는 1) 유예기간, 2) 농산품유통 표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중 FTA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력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민감품목은 반드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세계시장 및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를 점하는 품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감품목의 선정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품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한·중 FTA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2〉 FTA하 무역개방 시나리오

구분	중국	한국
시나리오1	자동차, 철강 자유화 유예	곡물 TRQ, 다른 농산물 10% 품목관세 철폐
시나리오2	자동차 철강 품목 50% 관세 철폐	농산물 총 품목의 50% 관세 철폐
시나리오3	자동차, 철강품목 90% 관세철폐	농산물 총 품목의 90% 관세 철폐

자료 :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KIEP, 2004

한·중 FTA가 전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탄력성의 개념을 활용한 정태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FTA가 대외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보다 세밀한 CGE 모형이나 더 나아가 GTAP 모형이 국가 차원에서는 가능하나 지역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도구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현재의 산업 및 무역구조를 반영하기에는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간편하면서도 활용성이 뛰어난 탄력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출액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며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입액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한·중 FTA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량의 변화를 보면 알루미늄과 그 제품의 수출량의 변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무와 그 제품(80.1%), 진주 및 귀석((69.2%), 의류와 그 부속품(60.9%),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60.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석유 화학 및 정밀화학 계통의 제품의 수출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보면 시나리오 3을 기준으로 자동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화합물, 동과 그 제품, 진주 등 귀금속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정유와 레지노이드, 화장품이 100.1%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비료(77.6%), 석·플러스터·시멘트 등(62.3%), 편직물(54.0%)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제품군에서 가격탄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 관세의 철폐에 따라 수입량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보면 시나리오 3을 기준으로 석·플러스터·시멘트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금, 황, 토석류 등,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유리 및 유리제품, 각종화학공업생산물, 무기화학품 순이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FTA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이나 수출의 증가보다는 수입의 증가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3에

의하면 전체적인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역수지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한편, 석유화학 산업 또한 교역은 대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화합물을 포함한 석유화학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유를 포함한 특정품목 위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유산업의 수출과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은 품목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과 수입이 각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로 인한 효과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중 FTA의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중 FTA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FTA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에 대한 지원,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분야 대부분의 기업은 독자적인 마케팅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국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사회시스템이 상이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유통망의 확보가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므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유통망의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전북과 중국기업 간 투자유치 및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 될 것이므로 이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북기업과 중국기업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업이 더 이상 비용 비교우위 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고부가가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라북도와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FTA로 인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결성이 중요하므로 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투자유치 및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R&D의 확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부분 가공무역이어서 산업 내에서 분업을 이룰 수 있는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전북 기업 및 산업의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피해분야의 연락처를 위한 지원과 적극적 관점에서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구조조정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FTA는 인적 물적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므로 기존에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일부 성공적인 진출을 한 것을 벤치마킹 삼아 전북에서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및 중국 기업과 연계한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접 수요자들로 부터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시장을 진출할 때 중국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은 다른 도전이 있겠지만 하나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지원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그리고 중국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대륙은 지역별로 특성이 뚜렷하여 만일 한 기업이 서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전북에서 유학을 하고 본국에 돌아갔으므로 이들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출 및 기업지원전략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DB화 작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국은 전북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이므로 수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중국의 시장동향, 무역규제사항, 국제통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농업분야에서의 민감품목의 분류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FTA 체결 전에 추정된 피해액에 근거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신청이 생각보다 적었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농가지원 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 FTA 결과 특화전개보다는 교역량 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가피해가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에 근거하여, 국내 농업생산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역지수만 사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표 3〉 한·중 품목군 분류 결과

구 분	품 목
1품목군 (경쟁력강 품목)	수박, 사과·배
2품목군 (경쟁력약 품목)	인삼
3품목군 (민감품목군)	생강, 쌀, 담배
4품목군 (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보호대상 후보품목군)	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우유), 계란, 천연꿀, 감자,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고구마, 바나나, 감귤, 포도, 복숭아, 커피, 차,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땅콩, 식물성유

한편, 농촌경제연구원(2009)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한·중 FTA에 따른 전라북도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최소 540억 원에서 최대 2,9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나리오1(12% 민감품목 관세부과, 검역규제)의 경우에는 약 54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며, 시나리오2(쌀 제외 관세철폐, 검역규제)의 경우에는 약 2,522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한다. 시나리오3(12% 민감품목 관세부과, 검역해제)의 경우에는 약 611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며, 시나리오4(쌀 제외 관세철폐, 검역해제)의 경우에는 약 2,925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한다.

〈표 4〉 한·중 FTA에 따른 전북 농업 생산감소액

(단위 : 억 원)

구 분	국내 생산감소액 <sup>1)</sup>	전북 생산감소액 <sup>2)</sup>	비 고
시나리오1	4,354	540	관세 - 12%제외 검역 - 계속규제
시나리오2	20,338	2,522	관세 - 쌀제외 철폐 검역 - 계속규제
시나리오3	4,928	611	관세 - 12%제외 검역 - 해제
시나리오4	23,585	2,925	관세 - 쌀제외 철폐 검역 - 해제

참고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2010)

2) 전북 생산감소액 = 국내 생산감소액 \* 전북 농업 비중(12.4%)

전라북도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다만,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우선 개별 농가별로 경영주체, 소득규모, 생산품목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한 이후,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로 영농형편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라북도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계수가 높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농업의 핵심 작목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후, 지역의 입지조건과 비교우위성을 검토하여 유망작목을 발굴하되, 이를 지역특산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 농산물 시장 전체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력화, 수확 후 관리기술,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부담하기 보다는 산학관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모화와 노동투입비용절감을 위해 농작업의 공동화나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생력화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품 혁신지원으로 새로운 품종개발, 틈새시장 개척, 고부가가치형 농산물 가공, 수확 후 관리기술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마케팅 혁신 지원으로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수직계열화 방향으로 농업경영구조를 전

환해야 하며, 끝으로 산업 융복합화 차원에서 농촌관광과 특산품 판매 등을 상호연계 하는 6차 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도 및 시·군, 농협, 농민들과 함께 합심하여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 1위인 파프리카 등 원예작물의 ‘수출주력 상품화’가 시급하며, 이미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고 전업화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화훼, 시설채소, 김치 등도 수출 상품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칠 FTA 체결 이후 과수부문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식량 작물, 특용작물,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도 차원에서 과수 및 축산부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축산 및 과수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과 품목에 대해서 도차원의 별도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별로 구조조정이 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중 FTA로 인한 지역별·품목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도내 경제주체들 간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별, 품목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협의기구 또는 대책반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	6
제 2 장 한·중 FTA의 주요 이슈 .....	9
제 1 절 한·중 FTA의 경과 및 내용 .....	9
제 2 절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 .....	17
제 3 장 전라북도 대 중국 교역 현황 .....	23
제 1 절 전라북도 대 중국 수출입 추이 및 특징 .....	23
제 2 절 전라북도 대 중국 민감품목 선정 .....	33
제 4 장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	45
제 1 절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	45
제 2 절 제조업 부문 기본 대응방안 .....	56
제 5 장 농축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	65
제 1 절 농업 분야의 파급영향 .....	65
제 2 절 농업·농촌 부문 기본 대응방안 .....	91
제 6 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	109
부 록 .....	113
부록 1: 전북의 수출액 .....	113
부록 2: 전북의 수입액 .....	117
부록 3: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관세율 .....	121

## 표 목 차

<표 2-1>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경과 .....	12
<표 2-2>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주요내용 .....	14
<표 2-3> 제조업 분야별 FTA 효과 .....	15
<표 2-4>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기타 이슈별 주요 내용 .....	16
<표 3-1> 전북의 중국 수출액 .....	25
<표 3-2> 품목별 전북의 대 중국 수출 규모(200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	26
<표 3-3> 전북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26
<표 3-4> 품목별 전북의 대 중국 수출 비중(200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	27
<표 3-5> 전북의 중국 수입액 .....	27
<표 3-6> 품목별 전북의 대 중국 수입 규모(200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	28
<표 3-7> 품목별 전북의 대 중국 수입 비중(200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	29
<표 3-8> 2000년 전북의 대 중국 10대 수출 및 수입 품목 .....	30
<표 3-9> 2005년 전북의 대 중국 10대 수출 및 수입 품목 .....	31
<표 3-10> 2009년 전북의 대 중국 10대 수출 및 수입 품목 .....	32
<표 3-1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	34
<표 3-12> 수출증가율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	35
<표 3-13> 대 중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	36
<표 3-14>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	37
<표 3-15> 분석대상산업의 분류 .....	38
<표 3-16> FTA하 무역개방 시나리오 .....	41
<표 4-1> FTA시 경쟁 보완 패턴과 시장보호 요구도 .....	45
<표 4-2>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 .....	46
<표 4-3> 한·중 FTA에 따른 제조업 수출량의 변화 .....	48
<표 4-4> 한·중 FTA에 따른 수입량의 변화 .....	50
<표 4-5>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 .....	52
<표 4-6> 전북의 한국 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중 .....	53
<표 4-7> 도내 자동차 생산 현황 .....	56
<표 4-8> 도내 자동차 부품 현황 .....	57

<표 5-1>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 .....	66
<표 5-2> 농업부문 고용현황 .....	67
<표 5-3> 전북 시군별 인구현황 .....	68
<표 5-4> 전북 시군별 농가인구 변화 .....	69
<표 5-5> 전북 농가소득 현황 .....	71
<표 5-6> 농가 품목별 생산비중 .....	71
<표 5-7>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농업생산액 .....	73
<표 5-8> 중국의 작물별 경작 면적 .....	73
<표 5-9>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 .....	74
<표 5-10> 중국의 채소 수급 현황 .....	75
<표 5-11> 중국의 과일 수급 현황 .....	76
<표 5-12> 중국의 축산물 수급 현황 .....	76
<표 5-13>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	77
<표 5-14> 중국의 식물작물 수출입 동향 .....	78
<표 5-15> 중국의 채소 수출입 동향 .....	79
<표 5-16> 중국의 과일 수출입 동향 .....	79
<표 5-17> 중국의 축산물 수출입 동향 .....	80
<표 5-18> 한·중 농산물 수출입 .....	81
<표 5-19> 한·중 농산물 수출 현황 .....	82
<표 5-20> 한·중 농산물 수입 현황 .....	84
<표 5-21> 가격경쟁력에 의한 주요 민감품목 .....	85
<표 5-22> 교역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	85
<표 5-23> 지역집중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	86
<표 5-24> 농업부문의 민감품목 분류 .....	86
<표 5-25> 한·중 품목군 분류 결과 .....	88
<표 5-26> 한·중 FTA에 따른 전북 농업 생산감소액 .....	89
<표 5-27> 한·중 FTA에 따른 품목별 농업 생산감소액 .....	90
<표 6-1> 한·중 품목군 분류 결과 .....	104
<표 6-2> 한·중 FTA에 따른 전북 농업 생산감소액 .....	105







# 제 1 장



##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서부터 대외의존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대외무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칠레, 미국, EU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 일본, 호주 등 향후 무역협정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자 또는 다자간의 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를 하여 자유무역을 시행함으로써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진출국의 입장에서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타 국가에 대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중국의 빠른 성장과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논리에 부가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기조의 전환,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중국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데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타 국가와의 FTA는 비교적 용이하게 체결을 하였으나(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어 타협이 용이한 편임)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중 FTA는 2007년 3월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나 2009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2010년 5월에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으나 농산물 분야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담았다. 상대적으로 보완적인 기능이 많은 미국이나 EU와의 FTA와 달리 중국과

는 국내 제조업 분야와 농축산물 부문 모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다양해 협상의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협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한·중 양국이 상호간을 큰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큰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괄타결 형태로 오히려 쉽게 체결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FTA가 체결되어 무역과 투자 장벽이 제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중 FTA는 한국의 농수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이 분포하므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뿐 아니라 기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방향설정과 FTA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safety net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중 FTA에 대한 영향력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FTA로 인한 산업/기업/사회적 측면에서 분석되지 않고 있다. 조기에 이러한 영향력 분석을 통하여 전북의 산업의 위기를 최소화 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한·중 FTA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농축산부문의 가격경쟁력이 뒤처지는 분야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사전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부문의 분석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북의 산업구조 조정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FTA로 인하여 전라북도에 파급되는 영향을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여 무역 및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한·중 FTA가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제조업과 농축산업 부분을 HSK 2단위 레벨에서 분석을 하고 서비스산업 분야는 현재 전라북도와 중국 간의 교역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리하여 한·중 FTA에 대한 전라북도의 파급영향을 연구하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한·중 FTA에 대한 전라북도의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한·중 FTA가 전북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므로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한·중 FTA로 인한 전북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에 한정하며 필요시 전국의 평균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한편, 내용적인 범위는 전북의 모든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여야 하나 전북에 미칠 영향이 많은 소위 “민감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중점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내용적으로 모든 산업이 상이하나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성격적인 차이가 많으므로 제조업/서비스업과 농축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은 전라북도와 중국과의 교역이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분석의 시간은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최대한 많은 시계열을 확보하여 분석하면서도 최근의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 2 장



## 한 · 중 FTA의 주요 이슈

제 1 절 한 · 중 FTA의 경과 및 내용

제 2 절 한 · 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





## 제 2 장 한·중 FTA의 주요 이슈

### 제 1 절 한·중 FTA의 경과 및 내용

#### 1. 한·중 FTA의 논의 경과

##### 1) 한·중 FTA의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 간 무역협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FTA 확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요 유망 교역 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 정책기조로 삼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FTA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내 자유무역협정국을 신설하였다. 한·중 FTA로 인한 상호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함으로써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중 FTA는 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시 2년간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O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1년차 민간공동연구에서는 북경과 서울에서 2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국의 FTA 추진정책, 거시경제 효과, 경쟁력 분석 및 민감분야 도출, 투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집중 연구, 발표하였고 2년차 에서는 상하이와 제주에서 2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국 측에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서비스 관심분야에 대한 중점연구를 시행하였고 우리 측에서는 농수산물, 섬유류 서비스 관심분야에 대한 중점연구를 시행하였다.

##### 2) 산관학 공동연구 경과

민간공동연구 이후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기로 합의하였다.

## (1) 1차 회의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2007년 3.22(목)~3.23(금) 양일간 북경 상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양국 연구기관(KIEP, DRC) 간의 공동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FTA 추진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되,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양국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로서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계기 양국 통상장관회담 합의로 개시하게 된 것이다.

1차 회의는 양국간 FTA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양측의 공동인식 아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공동연구 운영세칙,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을 확정하였고, 아울러, 양측의 FTA 추진경험을 토대로 FTA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루어 졌다.

우리 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FTA의 선호와 함께 농수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중국 측은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화장품 등 민감 산업에 대한 FTA 영향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의 극복방안으로 양국 업계 간의 대화채널 구축을 희망하였다.

## (2) 2차 회의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2007년 7.3(화)~7.4(목) 양일간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에서 다루기로 한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 중 상품 분야에 대해 양국이 사전 교환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였다.

양측은 한·중 FTA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함께 양국의 민감 분야(한국 : 농림수산업, 중국 :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기술하기로 합의하였고 동 원칙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보고서 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작업을 갖고 필요시 실무진간 중간 검토회의를 거쳐 보고서 내용을 협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3차 회의를 10월 중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동 회의 시에는 이번 상품분야에 이어 서비스·투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3) 3차 회의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가 2007년 10.24(수)~26(금) 중국 웨이하이에  
서 개최되었다. 3차 회의에서는 상품(제조업,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서의 한·중  
FTA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며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측은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의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의 관련 국내 법령 등 규제 현황 및 FTA를 통한 자유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  
였다.

### (4) 4차 회의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가 2008년 2.18(월)~20(수)간 제주(신라호텔)  
에서 개최되었다. 4차 회의에서 상품(제조업, 농림수산업) 및 여타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적권, 경쟁, 경제협력, SPS 8개 소분야의 문안에 대해 합  
의를 도출하였다.

공동연구 보고서는 총 7개 분야 18개 소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번 회의 결과 3  
개 소분야(농림수산업, 정부조달, 결론 및 권고)를 제외한 여타 15개 소분야에서 최종 합  
의를 도출하였다.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는 FTA 협상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바, 정부는 동 연  
구를 통해 우리 농수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충분한 의견 교환 기회를 가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 (5) 5차 회의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가 2008년 6.11(수)~13(금)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한, 중 양국은 한·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와 함께 경제·통상 관련 정책,  
법·제도 현황에 대한 논의하였다.

5차 회의에 양측 대표단은 최근 양국 간 교역 현황 평가 등을 토대로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중 농림수산업, 결론 및 권고 등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우리 측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상기 분야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도 계속 협의하는 등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면서 한·중 FTA 협상 추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6) 5차 회의 이후

2010년 5월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양국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데 합의하였고, 2009년 10월 북경에서 서명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간 2,000억불 교역목표 조기 달성과 2015년 3,0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합의사항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공동연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2-1〉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경과

회 의	협 의 내 용
한·중 통상장관회담 (2006.11월, 하노이)	· APEC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 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합의
1차 회의 (2007.3월, 베이징)	· 공동연구 운영세칙,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 확정
2차 회의 (2007.7월, 서울)	· 상품 분야 보고서 초안 논의
3차 회의 (2007.10월, 중국 웨이하이)	· 서비스, 투자 분야 보고서 초안 및 미합의된 총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논의 - 총론 및 서비스 분야의 보고서를 완결하고 제조업 및 투자 분야 보고서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 도출
4차 회의 (2008.2월, 제주)	·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재권, 경쟁, SPS, 경제협력 등 8개 분야 문안 합의 · 농림수산업에 대한 한·중 FTA의 영향, 민감 분야 보호 방안 등 쟁점 분야에서는 상호 이해를 제고
5차 회의 (2008.6월, 베이징)	· 농림수산업 분야, 결론 및 권고, WTO 대 중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잔여 쟁점 논의 · 향후 FTA 협상 시 범위는 우리 측 제안대로 지재권, 경쟁, 정부조달 등을 경제협력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분야로 다루는데 합의
한·중 통상장관회담 (2010.5월, 서울)	· 산·관·학 보고서 문안 최종 합의

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2. 한·중 FTA의 논의 내용

### 1. 한·중 FTA 산관학 공동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 1) 보고서의 구성 및 개요

한·중 FTA 산관학 공동보고서는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중 FTA에 따른 각 섹터별 영향에 대한 분석, 양국 법·제도 현황 분석과 한·중 FTA 협상 관련 권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공동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보고서에는 양국의 GDP·교역액·FDI 등 거시경제현황 및 관세수준과 FTA 체결 현황 등 통상정책을 개괄적으로 비교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현황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업종에서 한국의 대 중 수출 증가를 예상했지만, 중국의 수출경쟁력 확대에 의한 한국 측 수입증가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

농림수산업은 교역은 늘지만 비대칭적 영향이 발생해 민감 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자유화는 제조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혜택을 기대했으며, 상품·서비스·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FTA는 양국 간 투자 증대의 이상적 방안이며, 투자부문에 투자보호·투명성·효과적 분쟁해결 절차 등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포괄성·실질적 자유화·WTO 규범과의 합치성·민감 부문 고려·지속가능한 개발 등 5개 원칙”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양국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민감 부문에 대한 상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사전협의를 개최해 민감성 처리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보고서에서 민감성 부문에 대한 상호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향후 한·중 FTA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되고 발효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표 2-2〉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주요내용

항목	내용
① 총론	•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배경과 연구방향 기술
② 한·중 교역 및 경제 관계	• 양국의 GDP, 교역액, FDI 등 거시경제현황 및 관세수준과 FTA 체결현황 등 통상정책을 개괄적으로 비교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현황 기술
③ 상품 교역(제조업 및 농림수산업) 및 규범(원산지, 통관 및 무역구제)	• (제조업) 대부분 업종에서 한국의 대 중 수출 증가 예상, 단 중국의 수출경쟁력 확대에 의한 한국 측 수입증가 여지도 상당 • (농림수산업) 교역은 증대하되 비대칭적 영향 발생, 민감 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 필요 • (규범) 중국 측은 협상 개시 전 대 중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배제를 요청, 우리 측은 국내업계의 우려가 있음을 명시
④ 서비스	• 상품·서비스·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FTA는 양국 간 투자 증대의 이상적 방안이며, 투자 챗터에 투자보호·투명성·효과적 분쟁해결 절차 등 반영 필요
⑤ 투자	• 상품·서비스·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FTA는 양국 간 투자 증대의 이상적 방안이며, 투자 챗터에 투자보호·투명성·효과적 분쟁해결 절차 등 반영 필요
⑥ 기타 이슈(정부조달, 지적권, 경쟁, SPS, TBT, 분쟁해결, 경제협력)	• 인적교류, 정보교환, 위원회 설치 등 협력 증진방안 논의 필요
⑦ 결론 및 권고	• 5개 원칙에 대한 공통 이해 도출 : ① 포괄성, ② 실질적 자유화, ③ WTO 규범과의 합치성, ④ 민감 부문 고려, ⑤ 지속가능한 개발

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2) 한·중 FTA의 대한 세부 내용

한·중 FTA 대비하여 보고서에서 나타난 제조업 분야별 효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현재 중국의 관세가 가장 높은 분야는 자동차 부품이며 이 분야에서 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시 한국의 대 중 수출이 증가하되 한국의 대 중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 중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섬유·의류 분야이며 FTA로 인하여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 고부가가치 품목은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 예상,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의 주요 교역제품인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한국의 기술우위 및 중국의 수요급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 중 수출확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 한국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표 2-3〉 제조업 분야별 FTA 효과

업종	관세율 비교		FTA 효과
	한국	중국	
석유 화학	5.93%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기술 우위 및 중국의 수요 급증 등을 감안 시, 한국의 대 중 수출 확대 예상</li> <li>- 단,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증가 예상</li> </ul>
섬유 의류	9.98%	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증가 예상</li> <li>- 단, 고부가가치 품목 관련 한국의 대 중 수출 확대 예상</li> </ul>
철강	2.5%	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상대적 고관세 감안 시 한국의 대 중 수출 확대 예상</li> <li>- 단,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를 감안 시 그 폭은 변화 가능</li> </ul>
기계	6.56%	8.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33% 가량 높아 한국의 수출 확대 예상</li> <li>※ 양국 모두 범용제품을 주로 생산하나, 한국은 high-end, 중국은 low-end 제품 생산</li> </ul>
전자	5.4%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한국의 대 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투자 외국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한 수출도 증가 예상</li> </ul>
자동차/ 부품	8%	1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시 한국의 대 중 수출은 증가하되, 한국의 대 중 투자는 감소 예상</li> <li>• 한국 :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 중 투자가 지속될 전망</li> </ul>
비철 금속	6.27%	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이 내수 충족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점 감안 시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li> </ul>
고무	7.13%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 중 수출 증가 예상</li> <li>- 타이어는 중국의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ul>
화장품	8% 이하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대 중 수출 증가 예상</li> </ul>
제지	0.1%	6.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저부가가치 품목에서는 중국의 수출이 증가 예상</li> </ul>

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제조업의 이슈 이외에도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이며 이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이 논의 되었다.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한·중 FTA에서 관련 정보와 경험의 공유방안에 대한 논의 이외에 전자조달을 통한 상호이익 증대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는 한·중 FTA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와 인력의 교화, 다자조약 및 기구상 의무 재확인, 여타 국제협약가입 긍정고려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해결방법은 분쟁해결절차를 별도 챕터로 구성하고 pre-panel 절차를 장려하고 패널 결정의 효율적 이행 메카니즘의 마련, WTO 분쟁해결절차와 포럼 선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표 2-4〉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기타 이슈별 주요 내용

구분	양자, 다자 차원 논의 현화		향후 협력 방향
	한국	중국	
정부 조달	GPA 가입국, FTA 협상 시 WTO-plus 추구	GPA 가입 진행 중, 기체결 FTA에서 조달 분야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방안 논의</li> <li>• 전자조달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 기대</li> <li>• 한국 측은 한·중 FTA에 정부조달 챗터를 포함하되, GPA 틀 내에서 협상이 가속화 될 수 있음에 언급</li> </ul>
지재권	한·미 FTA를 계기로 지재권 수준 대폭 강화	기체결 FTA에서 지적표시, 국경조치 및 협력사항 등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지재권 분야 협력증진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와 인력 교환</li> <li>- 다자조약 및 기구상 의무 재확인</li> <li>- 여타 국제협약가입 긍정 고려</li> <li>-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li> </ul> </li> </ul>
경쟁	반경쟁적 행위 제한, 소비자 보호, 공기업 및 지정독점의 비차별의무 등을 규정한 포괄적 내용 포함	서비스챗터에서 서비스공급자에 한하여 경쟁 관련 의무 및 협의, 통보 규정 등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경쟁 관련 아래 사항 고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에서 경쟁정책 중요성 인정</li> <li>- 경쟁법 집행의 상호이해를 위한 정보교환</li> <li>- APEC내의 협력활동 증진</li> </ul> </li> </ul>
SPS	기체결 FTA는 WTO/SPS 권리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간결한 문안으로 구성	기체결 FTA는 WTO/SPS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투명성, 조화, 동등성, 지역화, 소위원회 등 조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SPS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S 관련 상품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표준, 법령체계 등에 대한 정보교환</li> <li>- 교역 중 발생하는 특정 SPS 문제 협의</li> <li>- SPS 분야 기술협력 증진</li> </ul> </li> </ul>
TBT	기체결 FTA는 WTO/TBT 권리의무 재확인을 하며, 상대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내용 상이	기체결 FTA는 WTO/TBT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표준, 투명성, 적합성평가, 기술협력, contact point, 소위원회 등 조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아래 목표 달성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간 정보교환체계 개선 및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영역의 투명성 강화</li> <li>- 국제기준의 폭넓은 적용 권장</li> <li>- 양국 간 교역활성화 위해 불필요한 기술장벽 제거</li> <li>-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분야 협력</li> <li>- 세미나, 상호방문 등을 통한 기술협력 증진 등 양국협력</li> </ul> </li> </ul>
분쟁 해결	기체결 FTA 분쟁해결 절차는 협의, 중재패널, 이행 절차로 상세히 구성	홍콩, ASEAN 등과의 FTA를 제외하고 여타 FTA에는 비교적 상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분쟁해결절차를 별도 챗터로 구성하고 아래 사항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panel 절차 장려</li> <li>- 패널 결정의 효율적 이행 메카니즘 마련</li> <li>- WTO 분쟁해결절차와 포럼 선택이 가능하도록 추진</li> </ul> </li> </ul>

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제 2 절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

### 1. 제조업 분야

#### 1) 중국 수출의 급증과 경쟁력 향상

중국은 2008년 세계 1위의 수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수출규모가 급성장하여 한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02년의 1,625억불에서 2008년 4,220불로 연평균 17.2%씩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중국은 3,256억불에서 1조 4,289억불로 연평균 28%씩 성장하여 무역격차가 2배에서 3.4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수출구조가 기존에는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고도화 되면서 한국과의 경쟁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의 경쟁영역이 기존에는 섬유와 경공업 부문에서 전기전자, 핸드폰, 디지털가전으로 전이되고 경쟁력 분야가 자동차, 조선 순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쟁품목 뿐 아니라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우위가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 상위품목은 2008년 기준 섬유 87개, 기계 53개, 철강 51개, 석유화학 44개, 전기전자 28개 등 전산업에 걸쳐 축소되고 있다. 또한 한·중간 산업기술격차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신산업이나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자 간 격차는 적어지고 있다.

#### 2) 중국제품의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지속적 향상

석유화학, 전자정보의 대 중 수출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석유화학이 주요 수출품목인 전북의 입장에서 중국은 주요 시장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한편, 철강 섬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3) 한국의 산업구조의 중국 편중성

중국 WTO 가입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소실되고 있다. 소위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섬유, 의류, 가구 등에서 발생하고 있고, 섬유, 의류, 가구는 2000-2006년간 제조업체수 비중이 5.5%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 수출용 원부자재인 반도체, LCD, 합성수지, 합섬원료 등은 중국 특수를 향유하였으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은 0.3% 포인트, 섬유·의류·가죽 비중도 1.5% 포인트씩 증가하였다.

중국의 산업구조 역시 최근 크게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은 0.8% 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중위기술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이 각각 0.3% 포인트, 0.5% 포인트씩 감소하였다.

#### 4) 무역수지와 FTA에 대한 인식

산업별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여 석유화학, 전자정보에서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고 철강, 섬유, 경공업, 금속에서는 적자 기록하는 것이다. 2005년(233억불)을 정점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업종별, 품목별, 기업규모별로 FTA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 한중간 관세율의 차이

2009년 중국 관세율 평균치는 9.8%, 그 중 농산물 15.2%, 공산품 8.9%이다. 2009년 세목은 7,866개 이며 2008년 대비 5개 품목만 관세 인하이며 2001년 WTO 가입 시 평균 관세율은 15.3%이다.

한국의 대 중 수출은 7~80%가 수출용으로 면세(가공무역의 경우)가 많이 실제 가중 평균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이다.

#### 6)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비관세장벽에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식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양산하고 있다. 수출입허가증과 쿼터제, 중고기계 전기제품 수입금 등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산업별로 보면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이 높은 편이다.

또한 경쟁분야, 무역기술 장벽도 높은 편이어서 2002년 5월부터 시행된 강제성 상품

인증제도와 중국의 상품검역제도는 경쟁분야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조달에서 국내산 조달원칙의 강조하고 있으며 외국산 제품 구입 시 사전 관계기관의 허가를 요구하는 등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2009년 5월부터 중국정부가 향후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중국산제품의 우선구매를 지시하여 10대 산업진흥계획(2009-2011년)과 맞물리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 7) 중국의 투자유치정책 기조의 변화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금액, 업종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의 차별화 한다. 외투에 대한 지분제한을 실시하고 산업정책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제한도 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초부터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부와 남동부지역, 특히 산동성, 요녕성과 강소성 등에 투자하였으며 그 후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와 중부와 서부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투자규모는 실질적으로 매우 작아 1992년~2003년 까지 0.9백만 불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 2. 농축산업 분야

### 1) 유예기간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2) 농산품유통 표준화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의 새로운 협력 분야로 농산품 유통표준화에 대해 업계 간 정보교류 등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 3 장



## 전라북도 대 중국 교역 현황

제 1 절 전라북도 대 중국 수출입 추이 및 특징

제 2 절 전라북도 대 중국 민감품목 선정



## 제 3 장 전라북도 대 중국 교역 현황

### 제 1 절 전라북도 대 중국 수출입 추이 및 특징

#### 1. 전북의 교역 현황

##### 1) 수출 현황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수출 규모는 2000년에 2,881백만 불에서 2009년 6,032백만 불로 매년 8.56%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02년까지는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2003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08년까지 꾸준히 수출규모가 성장해왔다. 하지만 2009년에는 자동차 분야의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전체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수출 규모가 가장 높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분야로 2009년에 2,747백만 불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량의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로 매년 12.4%씩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기화합물 분야로 매년 56.63%씩 성장하여 2009년에는 전체 수출량의 8.81%인 532백만 불을 수출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기기기 분야, 플라스틱 제품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자동차 부품 분야가 전라북도 수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핵심 수출 품목임을 알 수 있으나, 타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의존성이 강하지만 다른 품목들의 수출 성장세가 크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출 의존성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성장률을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품목은 의료용품으로 2000년 3천불에서 2009년 3,583천불로 매년 119.7%씩 성장하였다. 2002년까지는 수출 규모가 작았지만 2003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방 관련 의료용품의 수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낙농품으로 2000년 5천불에서 2009년 2,191천불로 매년 96.57%씩 증가하고 있다. 낙농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급격하게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임실치즈 등과 같은 낙농 관련 식품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2) 수입 현황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수입 규모는 2000년 1,501백만 불에서 2009년 3,194백만 불로 매년 8.75%씩 증가하고 있다. 무역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2000년에 1,379백만 불 흑자였고 꾸준히 흑자 상태를 유지하여 2009년에는 2,838백만 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다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으로 인해 무역 수지 규모가 1,000백만 불 이하의 흑자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수입 규모가 가장 높은 품목은 유기화학품으로 2000년 이후부터 매년 8.0%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전체 수입 규모의 11.8%인 376백만 불의 품목이 수입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계류로 매년 15.3%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전체 수입물량의 11.0%인 351백만 불이 수입되었고, 전기기기 및 부품류, 곡물류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품목들은 광물류, 항공기 부품류, 의류 및 소재류가 40% 이상씩 수입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2. 전북의 대 중국 교역 현황

### 1) 대 중 수출 현황

전북의 대 중국 수출 규모는 2000년에 278,325천불에서 2009년 현재 792,137천불로 매년 12.32%씩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총 수출 규모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 비율은 2000년에 9.7%에서 2003년에 21.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2008년까지 비율이 8.9%까지 낮아졌으나 2009년에 13.1%로 다시 늘어났다.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 수출 규모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까지는 자동차 등의 대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었지만 그 이후에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 전북의 중국 수출액

(단위 : 천불, %)

연도	총수출	중국으로의 수출	비율
2000	2,881,057	278,325	9.7
2001	2,219,613	281,376	12.7
2002	1,943,083	315,183	16.2
2003	2,866,130	614,735	21.4
2004	4,224,538	803,050	19.0
2005	4,850,995	817,995	16.9
2006	5,470,985	696,346	12.7
2007	6,354,452	718,480	11.3
2008	6,842,081	610,333	8.9
2009	6,032,293	792,137	13.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품목별로 대 중국 수출 규모를 살펴볼 때, 2009년을 기준으로 무기화학품, 귀금속 및 무기화합물이 242,823천불로 가장 큰 규모로 수출되었으나,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그 규모가 17배 증가하여 일반적인 교역 현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투자패턴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하여 투자패턴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꾸준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은 플라스틱류, 전기기기류, 동제품, 자동차, 유기화학 제품류로 큰 규모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 품목별 전북의 대 중국 수출 규모(200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불)

순위	품목	2008년	2009년
1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14,162	242,823
2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18,449	117,548
3	전기기기외 그 부분품	130,390	114,312
4	동과 그 제품	88,064	77,387
5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4,189	62,491
6	유기화학품	57,112	40,811
7	인조장섬유	19,095	23,897
8	철강	11,782	15,186
9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26,975	14,562
10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9,188	13,387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수출 규모 측면에서 볼 때, 대 중국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유·무기 화학품, 자동차 관련 품목들이었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체 수출규모 중에서 대중국으로의 수출 규모 비중은 2000년에 9.66%로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를 넘었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2009년 현재 전라북도 수출품목의 13.13%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일부 품목(선박)은 비중 변동이 심하여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자동차 관련 품목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만 3.08%로 극히 낮았으며, 일부 품목들의 수출 경향은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전략 수출 품목이라고 정의내리기 어렵다.

〈표 3-3〉 전북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규모	9.66	12.68	16.22	21.45	19.01	16.86	12.73	11.31	8.92	13.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수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출품목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은 식물성생산물, 단백질계 물질, 가죽, 자동차 관련 품목 등이었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일부 품목은 비중 변동이 심하여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자동차 관련 품목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만 3.08%로 극히 낮았다.

〈표 3-4〉 품목별 전북의 대 중국 수출 비중(200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품목	2008년	2009년
1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100.00	100.00
2	연과 그 제품	0.00	100.00
3	선박과 수상구조물	0.00	99.59
4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골루우, 효소	69.15	91.22
5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100.00	90.12
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3.08	77.42
7	주석과 그 제품	100.00	75.76
8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아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89.99	72.03
9	동과 그 제품	63.91	65.61
10	당류와 설탕과자	38.62	54.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2) 대 중 수입 현황

전북의 대 중국 수입 규모는 2000년에 240,317천불에서 2009년 현재 539,305천불로 매년 9.4%씩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전체 수입규모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 비중은 2000년에 16.01%로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이후 20%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볼 때, 전라북도와 중국과의 무역 구조는 2002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무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3-5〉 전북의 중국 수입액

(단위 : 천불, %)

연도	총수입	중국으로의 수입	비율
2000	1,501,319	240,317	16.0
2001	1,502,915	239,441	15.9
2002	1,599,851	348,572	21.8
2003	2,042,837	449,939	22.0
2004	2,522,398	414,295	16.4

연도	총수입	중국으로의 수입	비율
2005	2,456,326	576,196	23.5
2006	2,547,563	553,302	21.7
2007	3,063,108	701,810	22.9
2008	4,103,871	779,232	19.0
2009	3,193,849	539,305	1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품목별로 대 중국 수입 규모를 살펴볼 때, 2009년을 기준으로 전자기기 관련 품목이 84,613천불로 가장 큰 규모로 수입되고 있으며, 유·무기화학품도 역시 큰 규모로 수입되고 있다. 1차 산업 중에서 어업 관련 품목이 규모 측면에서 9번째로 큰 규모로 수입되고 있으나,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1차 산업의 수입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수입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은 섬유 계통 품목들로 연간 80% 이상씩 수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 무기화학물 품목도 역시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품목별 전복의 대 중국 수입 규모(200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불)

순위	품목	2008년	2009년
1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8,211	84,613
2	유기화학품	57,162	78,319
3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무기화합물	111,023	59,258
4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3,593	32,053
5	유리와 유리제품	33,814	26,274
6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36,891	23,978
7	식품공업 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31,904	23,630
8	알루미늄과 그 제품	95,484	22,979
9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7,591	19,775
10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1,213	19,1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전라북도도 수입되는 품목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은 식물성생산물, 섬유계 품목들이므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일부 품목(담배류)은 비중 변동이 심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연성제품류, 인모제품류는 전라북도 수입품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류나 의류계열 품목들은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품목별 전북의 대 중국 수입 비중(200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 %)

순위	품목	2008년	2009년
1	연과 그 제품	100.00	100.00
2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100.00	100.00
3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99.24	100.00
4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0.00	100.00
5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95.97	99.20
6	산류,지팡이,시트스탁,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93.11	98.39
7	커피, 차, 마태, 향신료	97.89	98.25
8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31.58	94.12
9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	85.79	92.41
10	견	87.78	82.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3) 전북의 대 중국 10대 수출 및 수입 item

전라북도의 중국과의 교역은 커다란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품목의 수출입 변화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 2000년, 2005년, 2009년의 10대 수출 수입액을 HSK 4단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가 1위를 차지하였고 정밀기기와 신문용지 순이었다. 반면 수입은 다이오드와 같은 반도체 형태의 부품의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폐지, 옥수수, 연, 원목 순으로 제품의 원료가 되는 품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다이오드와 같은 반도체 형태의 부품은 수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액으로는 순수출을 보이고 있어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폴리아세탈수지, 화물자동차 순으로 자동차 및 부품, 화학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0년에

는 승용차가 1위를 차지하고 자동차 부품, 비금속 원소, 화물자동차, 신문용지의 순으로 수출되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중요도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도 수입은 옥수수가 1위를 차지하고 비환식 알코올, 원목, 페놀과 페놀 알코올, 다이오드 등의 순이었으며 2009년도는 다이오드가 1위를 차지하였고 옥수수, 기타기계류, 오일케이크,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순 이었다. 2009년도에는 기타 기계류와 철의 웨이스트와 같은 기계 및 철강원료의 수입이 눈에 띄었다.

### (1) 2000년도

〈표 3-8〉 2000년 전북의 대 중국 10대 수출 및 수입 품목

(단위 : 천불)

구분	수출	금액	수입	금액
1순위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	714,764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106,122
2순위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308,166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99,375
3순위	신문용지(로울상 또는 슈이트상의 것)	189,743	옥수수	79,352
4순위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168,307	면(카야드 또는 코운한 것 제외)	61,156
5순위	합성스테인플성유(카드·코운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138,699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뜯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5,563
6순위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113,029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52,321
7순위	화물자동차	109,643	화학목재펠프(소다펠프 또는 황산펠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1,735
8순위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109,218	페놀과 페놀알코올	34,694
9순위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78,7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8,803
10순위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53,121	대두유 추출 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	28,6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참고 : HSK 4단위 기준 코드

## (2) 2005년도

〈표 3-9〉 2005년 전북의 대 중국 10대 수출 및 수입 품목

(단위 : 천불)

구분	수출	금액	수입	금액
1순위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	1,494,872	옥수수	206,165
2순위	부분품과 부품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537,734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110,975
3순위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12,088	원목(깎질 또는 번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뜯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4,529
4순위	화물자동차	273,099	패놀과 패놀알코올	88,180
5순위	신문용지(로울상 또는 슈이트상의 것)	213,392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926
6순위	합성스티어플성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200,411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84,261
7순위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164,136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64,308
8순위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153,369	화학목재펠프(소디펠프 또는 황산펠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58,884
9순위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114,173	면(카야드 또는 코움한 것 제외)	56,725
10순위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 드릴봉	90,579	대두유 추출 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	55,9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참고 : HSK 4단위 기준 코드

### (3) 2009년도

〈표 3-10〉 2009년 전북의 대 중국 10대 수출 및 수입 품목

(단위 : 천불)

구분	수 출	금액	수 입	금액
1순위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	1,332,977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244,597
2순위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683,297	옥수수	199,591
3순위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486,603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160,503
4순위	화물자동차	422,609	대두유 추출 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	127,894
5순위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348,949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119,413
6순위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19,387	알루미늄의 괴	114,286
7순위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229,140	원목(깎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3,126
8순위	신문용지(로울상 또는 슈이트상의 것)	213,333	질소헥테로고리 화합물	80,130
9순위	합성스티어플성유(카드·코웅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157,628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77,876
10순위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131,667	밀과 메슬린	75,5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참고 : HSK 4단위 기준 코드



## 제 2 절 전라북도 대 중국 민감품목 선정

### 1. 민감품목 선정 방법

#### 1) 선정 방법론

FTA는 양국의 소득을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에 재분배 하는 효과를 가진다.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경쟁력을 무기로 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반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FTA로 인한 시장잠식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은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FTA의 체결은 국내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상대국에 대한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FTA 체결 시 주로 관리를 해야 할 품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 FTA의 체결 시 중국과의 경쟁력 뿐 아니라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또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력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다음에서 설명한다. “민감품목”으로 지칭이 된 품목을 반드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세계 시장 및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를 점하는 품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민감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sup>1)</sup>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분류: 제 1단계

민감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단계는 세계시장에서 특장상품이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이는 전라북도의 대 세계 무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에 소개된 방법론 활용

역특화지수(TSI<sub>i</sub>)를 통해 구할 수 있다.

$$TSI_i = \frac{(X_i - M_i)}{(X_i + M_i)} \quad (1)$$

여기서  $i$ 는 품목이며  $X$ 는 전라북도의 대세계 수출액,  $M$ 은 전라북도의 대세계 수입액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가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 0이면 수출입 규모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쟁력이 강하고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본다.

〈표 3-1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품목군	기 준	설 명
제1품목군	$TSI_i \geq \overline{TSI}$	수출특화품목
제2품목군	$TSI_i < -0.9$	절대 수입특화 품목군
제3품목군	$-0.5 \leq TSI_i < \overline{TSI}$	경쟁력 취약 품목군
제4품목군	$-0.9 \leq TSI_i < -0.5$	절대 경쟁력 취약 품목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주 :  $\overline{TSI} = (\sum_{i=1}^n TSI_i) / n$

위 표의 제1품목군은 전라북도가 경쟁력을 가지는 품목으로 FTA 협상의 관세유예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품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품목군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절대적으로 수입특화되어있는 품목이다. 제3품목군은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상태로 외국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품목이다. 제4품목군은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민감품목”은 제3품목군과 제4품목군을 합한 것이다.

## (2) 수출증가율에 의한 품목군 조정: 제 2단계

제1단계에서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경쟁력을 측정된 것이며 각 품목별로 동태적인 경쟁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절대적인 수입특화품목군 가운데 현재의

상황보다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동태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의 증가속도에 따라서 경쟁력이 확충되어 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제품군의 이동의 필요성이 생긴다. 1단계에서 제2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 가운데 해당 품목의 평균수출증가율이 전체 평균수출증가율의 3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당해 품목을 제4품목군인 전대 경쟁력 취약 품목군으로 이동 분류한다. 그러므로 그 품목의 평균수출 증가율이 전체평균수출 증가율의 3배 이상이면, 즉  $RGX_i = \frac{X - X_{-q}}{X_{-q} \times q} \geq 3 RGX_i = \frac{(X) - (X_{t-q})}{X_{t-q} \times q}$  를 제4품목군으로 이동한다.

<표 3-12> 수출증가율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1단계	변화기준	제2단계
제1품목군		
제2품목군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우 ( $RGX_i \geq 3 \times RGX$ )	제4품목군
제3품목군		
제4품목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3) 대 중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조정: 제 3단계

제3단계에서는 앞단계의 품목선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하여 아래 <표 3-13>과 같이 품목군을 조정하였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quad (2)$$

여기서  $j$ 는 FTA 협상대상국, 즉 본 연구에 있어서는 중국을 의미한다. 제3단계에서는 전라북도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 대비해서는 열위에 있는 품목을 대 중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이 품목들의 품목군을 조정하였다. 1단계에서 제1품목군에 분류되어 있어도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에서 경쟁력이 없을 경우 제3품목군으로 이동하였다.

전 단계에서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의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은 제1품목군으로 조정하였다.

〈표 3-13〉 대 중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제2단계	변화기준	제2단계
제1품목군	$TSI_{ij}$ 에 의해 제3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3품목군
제2품목군		
제3품목군	$TSI_{ij}$ 에 의해 제1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1품목군
제4품목군	$TSI_{ij}$ 에 의해 제1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1품목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4)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제 4단계

제3단계에서는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경쟁력 수준의 측정을 보완하기 위한 단계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 나라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냄으로써 무역특화지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RCA 보다는 특정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활용하고자 한다. RCA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MCA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MCA_{ij}^k = \frac{(X_{ij}^k - X_{ij})}{(M_{jw}^k + M_{jw})} \quad (3)$$

단,  $X_{ij}^k$ 는  $I$ 국가  $k$ 산업의  $j$ 국가에 대한 수출액을,  $X_{ij}$ 는  $I$ 국가의  $j$ 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을  $M_{jw}^k$ 는  $j$ 국가  $k$ 산업에 대한 대세계 수입액을,  $M_{jw}$ 는  $j$ 국가의 총수입액을 의미한다.

제4단계에서는 제2,3,4품목 중  $MCA_i$ 가 전복 전체 수출의 평균  $MCA$  지수 보다 2배 이상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제2품목군에 속해 있던 품목은 제4품목군으로 조정하고, 제3,4품목군에 속해 있던 품목은 제1품목군으로 조정하였다.

〈표 3-14〉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제3단계	변화기준	제2단계
제1품목군		
제2품목군	$MCA_i \geq 2 \times \overline{MCA}$	제4품목군
제3품목군	$MCA_i \geq 2 \times \overline{MCA}$	제1품목군
제4품목군	$MCA_i \geq 2 \times \overline{MCA}$	제1품목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5) 품목군의 추가조정: 제5단계

제5단계에서는 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는 품목에 제2품목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들을 제4품목군으로 이동하고, 또한 여타 정책적으로 육성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도 민감품목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 (6) 분석대상 산업 분류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경쟁력 수준의 측정을 보완하기 위한 단계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 나라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냄으로써 무역특화지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RCA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우위 비교보다는 특정 시장에 맞추어진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시장비교우위의 측정인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민감품목의 선정

위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 대상이 되는 민감품목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많은 부분이 제 1품목군인 수출특호 품목군과 절대수입특화 품목군으로 분류가 되어 FTA로 인하여 경쟁관계 및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의 수는 20개 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3-15〉 분석대상산업의 분류

구분	코드	품목	무역특화지수
제1품목군 (수출특화품목군)	94	가구와침구, 램프와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립식건물	0.96
	88	항공기와우주선및이들의부분품	0.93
	56	위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0.89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0.87
	20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식물의기타부분조제품	0.85
	62	의류와그부분품(메리아스밋뜨게질편물의것은제외)	0.85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유사제품	0.81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0.79
	55	인조단성유	0.75
	75	니켈과그제품	0.75
	14	식물성편조물용재료, 기타식물성생산품	0.74
	7	식용의채소, 뿌리, 괴경	0.62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및이들의부분품	0.58
	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0.57
	40	고무와그제품	0.56
	72	철강	0.56
	61	메리아스밋뜨게질편물의의류와그부분품	0.44
	79	아연과그제품	0.43
	81	기타비금속, 서메트, 이들의제품	0.43
	83	비금속제의각종제품	0.43
	97	예술품, 수집품과골동품	0.41
	1	산동물	0.26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압한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0.26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및이들의직물	0.18
	86	철도용기관차량및부품, 철도또는케도용의장비품및부품	0.16
	22	음료, 알코올, 식초	0.13
	73	철강의제품	0.10
	74	동과그제품	0.07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0.03
	21	각종조제식료품	0.01
	30	의료용품	-
	66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및이들의부분품	-0.04
	41	원피(모피제외)와가죽	-0.05
	85	전기기기와그부분품	-0.06
63	기타방직용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방직용섬유제품, 님마	-0.10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방직용섬유직물, 공업용의방직용섬유제품	-0.13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골루우, 효소	-0.17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조제품, 베이커리제품	-0.20	

구분	코드	품목	무역특화지수
	90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등	-0.20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왁스,연마조제품,양초,조형용페이스트	-0.21
	39	플라스틱및그제품	-0.22
	84	원자로,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0.22
	13	락,검,수지,기타식물성액즙과엑스	-0.23
	17	당류와설탕과자	-0.26
	10	곡물	-0.28
	52	면	-0.31
	68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또는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	-0.31
	58	특수직물,더후트한섬유직물,레이스,태피스트리,트리밍과자수포	-0.33
	65	모자류와그부분품	-0.33
	44	목재와그제품및목탄	-0.35
	29	유기화학품	-0.36
	80	주석과그제품	-0.37
	32	유연,염색엑스,탄닌과그유도체,염료,안료,페인트,퍼티,잉크	-0.40
	38	각종화학공업생산물	-0.45
	89	선박과수상구조물	-0.48
	31	비료	-0.49
	60	메리아스편물과뜨개질편물	-0.55
	69	도자제품	-0.55
	96	잡품	-0.57
	28	무기화학품,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유기,무기화합물	-0.59
	23	식품공업시생기는잔유물과웨이스트,조제사료	-0.61
	82	비금속제의공구,도구,칼붙이,스폰과포크및이들의부분품	-0.62
	12	체유용종자,과실,각종종자,과실,공업용,의약품식물,질,사료식물	-0.64
	50	견	-0.70
	36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합금,특정가연성조제품	-0.73
	33	정유와레지노이드,조제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	-0.75
	70	유리와유리제품	-0.77
	78	연과그제품	-0.81
	53	기타식물성방직용섬유와지시및지사의적물	-0.89
	5	기타동물성생산물	-0.93
	76	알루미늄과그제품	-0.98
제3품목군 (경쟁력취약 품목군)	8	식용의과실과견과류,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	-0.34
	57	양탄자류와기타방직용섬유제바닥깔개	0.50
	43	모피,인조모피및이들의제품	-0.29

구분	코드	품목	무역특화지수
제4품목군 (절대경쟁력취약 품목군)	87	철도또는케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0.96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	-0.97
	92	약기및그부분품과부속품	-0.57
	95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및그부분품과부속품	-0.59
	6	산수목,기타식산물,구근류,절화,장식용잎	-0.69
	91	시계와그부분품	-0.69
	47	목재펠트,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펠트,지,판지의웨이스트와스크랩	-0.76
	24	담배,제조한담배대용물	-0.99
	11	제분공업생산물,맥아,전분,이눌린,밀의글루우텐	-1.00
	46	짚,에스파르토,기타조물재료의제품과농세공물,지조세공물	-1.00
	48	지와판지,제지용펠트,지또는판지의제품	-1.00
	45	코르크와그제품	-0.84
	4	낙농품,조란,천연꿀,기타식용의동물성생산물	-0.89
제2품목군 (절대수입특화품 목군)	18	코코아,코코아조제품	-0.97
	93	무기,총포탄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0.94
	26	광,슬랙,회	-0.96
	54	인조장섬유	-0.98
	67	조제우모외솜털및그제품,조화,인모제품	-0.98
	15	동식물성유지,이들의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동식물성의납	-0.99
	37	사진용또는영화용의재료	-0.99
	2	육,식용설육	-1.00
	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	-1.00

참고 : HSK 2단위 기준 코드

### 3)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선정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FTA를 체결 시 GATT 제 24조(FTA 체결 시 무역장벽의 거의 대부분을 철폐해야 함)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FTA협정은 많지 않고 상호국간의 민감 품목에 대해 장기간의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부여하거나 관세철폐로부터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중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한국은 농업분야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농업분야의 많은 품목들에 대해 민감품목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 모두 곡물류에 대해 TRQ를 부여하고 쿼터 내 물량과 쿼터 외



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워낙 차이가 나므로 관세율을 어느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근거도 용이치 않다. TRQ하의 저 관세율을 적용하면 농업에 대한 영향이 과소계상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쿼터 외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면 농업에 대한 영향이 과대계상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경우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개방을 중심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화 예외를 인정하되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면개방을 전제로 하며 농업에 대한 예외조치의 대응으로 일부 제조업종(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자유화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시나리오1에서는 곡물에 대한 TRQ하의 저 관세만이 자유화 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곡물 외 다른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기존 관세율의 10%만이 인하된다. 이 경우, 중국 측도 제조업 분야의 예외를 요구할 것이다. 양국 제조업의 생산 및 교역구조로 볼 때, 자동차와 철강이 중국에게는 민감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두 산업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3-16〉 FTA하 무역개방 시나리오

구분	중국	한국
시나리오1	자동차, 철강 자유화 유예	곡물 TRQ, 다른 농산물 10% 품목관세 철폐
시나리오2	자동차 철강 품목 50% 관세 철폐	농산물 총 품목의 50% 관세 철폐
시나리오3	자동차, 철강품목 90% 관세철폐	농산물 총 품목의 90% 관세 철폐

자료 :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KIEP, 2004



# 제 4 장



##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제 1 절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제 2 절 제조업 부문 기본 대응방안



# 제 4 장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 제 1 절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 1. 파급 영향 개관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 산업 간의 경쟁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역형태의 이해와 경쟁관계의 분석을 통해 파급영향을 정밀하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중 간 분업패턴을 보면 일반무역에서는 일방적인 무역관계가 강한 반면 가공무역에서는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가 중간재 업종이 많고 이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조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FTA 추진 시 한국은 의류, 비금속광물, 기타 섬유제품에서 보호요구 강도가 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무제품, 정밀계측기기, 조선,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업종에서 보호요구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 FTA시 경쟁 보완 패턴과 시장보호 요구도

분업 관계	기 준		비교 우위 국가	보호 요구 예상 강도	해당업종
	경쟁 관계	우위관계			
산업내 무역	비경쟁적	양국모두비교우위		소	없음
		양국모두비교열위		소	목재 및 종이제품
		일방이비교우위	한국 중국	중 중	없음 비철금속, 가죽 및 모피, 무기화학, 기타공산품
	경쟁적	양국모두비교우위		소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 전자부품, 기타 전기기기, 화학성유
		양국모두비교열위		소	화장품, 의약품, 일반기계, 기타화학제품
		일방이비교우위	한국 중국	중 중	없음 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일방적 무역	비경쟁적	양국모두비교우위		소	철강
		양국모두비교열위		소	석유제품 및 코크스
		일방이비교우위	한국 중국	대 대	고무, 정밀계측기기, 조선 수산물, 의류
	경쟁적	양국모두비교우위		소	없음
		양국모두비교열위		소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담배, 기타운송장비
		일방이비교우위	한국 중국	대 대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비금속광물, 기타섬유제품

자료 : 양평섭 외, 한중 교역의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2007

과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각 국의 관세에 대한 특징이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면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간 교역구조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산품에 대한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에서는 중국(9%)이 한국(6.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명목관세율에서는 한국(4.62%)이 중국(4.4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에서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대 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2.7%)을 유지하고 있다. 가공무역용 원부자재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 될 때 관세를 면제받거나, 생산된 제품의 수출 후에 관세를 환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화장품, 스테인레스강 등 일부 업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편직물, 의류는 물론 가죽 및 모피, 화학섬유, 플라스틱제품,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

		한국의 관세		
		10%이상	5%이상 10%미만	5%미만
중국의 관세	10% 이상	-	완성차	-
	5% 이상 10% 미만	의류	자동차부품,가전기기,고무화장품,농약 및비료	-
	5% 미만	편직물	섬유직물,화학섬유,기타섬유제품,가죽 및모피,비금속광물,정밀광학계측기기,일반기계,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무기화학,의약품,유기화학,기타화학제품,기타공산품	목재및종이,철강제품,철강일차재료,스테인리스강,철강및비합금강,기타합금강및봉,석유제품및코크스,전자부품,통신기기,컴퓨터,기타전자제품,기타전기기기및부품

자료 : 양평섭 외, 한중 교역의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2007

## 2. 파급 영향 분석 개요

한·중 FTA로 인한 전라북도의 파급영향을 산정하는데 있어 일반연산모형을 활용한 방법이 더 효율적 일 수 있으나 지역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효용성에서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일반연산모형에서 사용하는 GTAP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여 좀 더 논리적이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대체로 4~5년 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상의 각 국가들의 투입산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2~3년의 시간과 이를 모형으로 하기 위해서 세계경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데 추가적인 2~3년의 시간이 경제구조가 빠른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점에서는 모델의 설정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GTAP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GTAP이 더 논리적이거나 많은 한계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활용하는데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파급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을 활용하여 한·중 FTA가 발효 시 가격경쟁력의 확대에 따른 수출의 증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FTA의 체결로 인하여 수출입가격의 변동만 발생하지 않고 제도적인 문제, 노동력의 이동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수출(입)가격의 탄력성에 의한 수출입 증감의 영향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의 하락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3. 산업별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 분석

### 1) 가격탄력성 분석

한·중 FTA가 전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탄력성의 개념을 활용한 정태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FTA가 대외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보다 세밀한 CGE 모형이나 더 나아가 GTAP 모형이 국가 차원에서는 가능하나 지역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도구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현재의 산업 및 무역구조를 반영하기에는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간편하면서도 활용성이 뛰어난 탄력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출액의 변화를 표시를 한 것이며 수

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입액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한·중 FTA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량 변화를 보면 알루미늄과 그 제품의 수출량의 변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무와 그 제품(80.1%), 진주 및 귀석(69.2%), 의류와 그 부속품(60.9%),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60.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계통의 제품의 수출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보면 시나리오3을 기준으로 자동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화합물, 동과 그 제품, 진주 등 귀금속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정유와 레지노이드, 화장품이 100.1%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비료(77.6%), 석·플라스터·시멘트 등(62.3%), 편직물(54.0%)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시나리오3을 기준으로 석·플라스터·시멘트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금, 황, 토석류 등, 전기기기과 그 부분품, 유리와 유리제품, 각종화학공업생산물, 무기화학품 순이었다.

〈표 4-3〉 한·중 FTA에 따른 제조업 수출량의 변화

(단위 : %)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2	음료,알코올,식초	6.5	6.5	6.5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조제사료	-	-	-
24	담배,제조한 담배대용물	39.3	39.3	39.3
25	소금,황,토석류,석고,석회,시멘트	5.0	5.0	5.0
26	광,슬랙,회	-	-	-
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	9.0	9.0	9.0
28	무기화학품,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무기화합물	39.6	39.6	39.6
29	유기화학품	7.1	7.1	7.1
30	의료용품	-	-	-
31	비료	-	-	-
32	유연.염색액,탄닌과 그 유도체,염료,안료,페인트,퍼티,잉크	8.8	8.8	8.8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20.0	20.0	20.0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12.6	12.6	12.6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골루우, 효소	5.8	5.8	5.8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	-	-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4.8	4.8	4.8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45.5	45.5	45.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3	3.3	3.3
40	고무와 그 제품	80.1	80.1	80.1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5.4	5.4	5.4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42	가죽제품,동물거트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	-	-
43	모피,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0.5	10.5	10.5
45	코르크와 그 제품	-	-	-
46	짚,에스파르토,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지조세공물	-	-	-
47	목재펠트,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지,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	-	-
48	지와 판지,제지용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60.6	60.6	60.6
49	인쇄서적,신문,회화,기타 인쇄물,수제문서,타이프문서,도면	-	-	-
50	견	17.8	17.8	17.8
51	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	-
52	면	10.7	10.7	10.7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
54	인조장섬유	6.5	6.5	6.5
55	인조단섬유	10.1	10.1	10.1
56	워딩,펠트,부직포,특수사,끈,코오디지,로페스,케이블과	25.4	25.4	25.4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	-	-
58	특수직물,더후트한 섬유직물,레이스,태피스트리,트리밍과 자수포	-	-	-
59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	4.8	4.8	4.8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3.3	3.3	3.3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	-	-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60.9	60.9	60.9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세트,중고의류,중고 방직용섬유제품,남마	2.6	2.6	2.6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66	산류,지팡이,시트스틱,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조화,인모제품	-	-	-
68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27.3	27.3	27.3
69	도자제품	35.3	35.3	35.3
70	유리와 유리제품	5.2	5.2	5.2
71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주화	69.2	69.2	69.2
72	철강	0.0	2.8	5.1
73	철강의 제품	0.0	4.4	8.0
74	동과 그 제품	19.7	19.7	19.7
75	니켈과 그 제품	-	-	-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84.5	84.5	84.5
78	연과 그 제품	-	-	-
79	아연과 그 제품	-	-	-
80	주석과 그 제품	13.9	13.9	13.9
81	기타 비금속,서메트,이들의 제품	-	-	-
82	비금속제의 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0.7	0.7	0.7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18.9	18.9	18.9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5	2.5	2.5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4.1	4.1	4.1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2.3	2.3	2.3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0	4.8	8.6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등	33.4	33.4	33.4
91	시계와 그 부분품	-	-	-
92	약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4	가구와 침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물	50.7	50.7	50.7
95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96	잡품	57.4	57.4	57.4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

〈표 4-4〉 한·중 FTA에 따른 수입량의 변화

(단위 : %)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2	음료,알코올,식초	-	-	-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조제사료	-	-	-
24	담배,제조한 담배대용물	-	-	-
25	소금,황,토석류,석고,석회,시멘트	45.5	45.5	45.5
26	광,슬랙,회	-	-	-
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	5.5	5.5	5.5
28	무기화학품,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무기화합물	6.1	6.1	6.1
29	유기화학품	4.3	4.3	4.3
30	의료용품	-	-	-
31	비료	77.6	77.6	77.6
32	유연.염색엑스,탄닌과 그 유도체,염료,안료,페인트,퍼티,잉크	3.3	0.3	0.0
33	정유와 레지노이드,조제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	100.7	100.7	100.7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왁스,연마제,양초,조형용 페이스트	-	-	-
35	단백질계물질,변성전분,골루우,효소	7.8	7.8	7.8
36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합금,특정가연성조제품	-	-	-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8.4	18.4	18.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9	17.9	17.9
40	고무와 그 제품	13.0	13.0	13.0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	-	-
42	가죽제품,동물거트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25.6	25.6	25.6
43	모피,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2.5	2.5	2.5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5.6	5.6	5.6
45	코르크와 그 제품	-	-	-
46	짚.에스파르토.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지조세공물	3.2	3.2	3.2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47	목재펠트,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지.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	-	-
48	지와 판지,제지용펠트,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
49	인쇄서적,신문,회화,기타 인쇄물,수제문서,타이프문서,도면	-	-	-
50	견	-	-	-
51	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	-
52	면	12.5	12.5	12.5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4.7	4.7	4.7
54	인조장섬유	7.5	7.5	7.5
55	인조단섬유	5.7	5.7	5.7
56	위딩,펠트,부직포,특수사,끈,코오디지,로페스,케이블과	8.6	8.6	8.6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갈래	-	-	-
58	특수직물,더후트한 섬유직물,레이스,태피스트리,트리밍과 자수포	-	-	-
59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공업용방직용 섬유제품	1.2	1.2	1.2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15.3	15.3	15.3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54.0	54.0	54.0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0.3	0.0	0.0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세트,중고의류,중고 방직용섬유제품,넝마	6.0	6.0	6.0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28.9	28.9	28.9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66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10.9	10.9	10.9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조화,인모제품	5.3	5.3	5.3
68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62.3	62.3	62.3
69	도자제품	9.1	9.1	9.1
70	유리와 유리제품	16.2	16.2	16.2
71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주화	2.0	2.0	2.0
72	철강	0.0	0.0	0.0
73	철강의 제품	6.7	6.7	6.7
74	동과 그 제품	11.9	11.9	11.9
75	니켈과 그 제품	-	-	-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6.8	6.8	6.8
78	연과 그 제품	-	-	-
79	아연과 그 제품	-	-	-
80	주석과 그 제품	-	-	-
81	기타 비금속,서메트,이들의 제품	0.8	0.8	0.8
82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3.7	3.7	3.7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	-	-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6.1	6.1	6.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3	3.3	3.3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	-	-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3.5	13.5	13.5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	-	-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등	9.9	9.9	9.9
91	시계와 그 부분품	-	-	-
92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4	가구와 침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물	3.0	3.0	3.0
95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2	5.2	5.2
96	잡품	-	-	-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

제조업 부문의 수출과 수입의 효과를 보면 수출증대의 효과가 시나리오3을 기준으로 69,248천불인 반면 수입증대의 효과는 시나리오3을 기준으로 3,027,603천불로 나타나 수입증대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와 같은 시나리오 하에 한·중 FTA에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가 한국과 중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시나리오1에서 한국은 GDP의 0.07%, 시나리오3에서는 0.37%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중국의 경우 시나리오1에서는 0.14%, 시나리오3에서는 1.28%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관세가 자유화 될수록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나리오1의 경우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가 유예 될 경우에는 과급효과는 기대한 것 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주력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어서 FTA로 인한 효과가 적을 수 있다.

〈표 4-5〉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sup>2)</sup>

구분	관세철폐 시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국가/시나리오			
한국	0.07	0.32	0.37
중국	0.14	0.72	1.28

자료 :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KIEP, 2004

## 2)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

기존연구	한국	중국
남영숙 외(2004)	0.14~2.30	0.07~0.78
신태용 외(2005)	0.18~1.08	0.04~0.18
Leeetal.(2005)	2.44~3.17	0.40~0.59

자료 : 양평섭 외, 한중 교역의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2007

한·중 FTA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된 부분에서 전라북도  
의 부분을 추정하면 전라북도의 한국 전체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의 비중을 보면 수출은  
0.867%, 수입은 0.701%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수입비중보다 높으므로 최대한을 수출비  
중 최소한을 수입비중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하면 한·중 FTA로 인하여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은 최소 0.00049%, 최대 0.00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의 증감에 따라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중 FTA로 인하여 산업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산업의 생산량의 조정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것이다.  
한·중 FTA로 일부 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예상과 같이, 섬유, 기타 수송  
장비, 전기전자, 기계장비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가공식품, 설탕, 차량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의 생산이 증가될 전망이다.

〈표 4-6〉 전북의 한국 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중

(단위 : %)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01	산동물	0.003	0.056	0.115
02	육,식용설육	0.009	0.168	0.345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001	0.001	0.004
04	낙농품,조란,천연꿀,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0.002	0.040	0.082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0.011	0.214	0.441
06	산수목,기타 산식물,구근류,절화,장식용 잎	-0.004	0.000	0.004
07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0.005	-0.001	-0.001
08	식용의 과일과 견과류,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006	-0.002	-0.001
09	커피,차,마태,향신료	0.001	0.028	0.057
10	곡물	-0.002	-0.026	-0.055
11	제분공업생산물,맥아,전분,이눌린,밀의 글루우텐	0.007	0.331	0.678
12	체유용 종자,과실,각종 종자,과실,공업용,의약품식물,짚,사료식물	0.000	0.014	0.029
13	락,검,수지,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0.011	0.174	0.389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기타 식물성생산물	-0.006	0.096	0.214
15	동식물성 유지,이들의 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동식물성의 납	-0.048	0.725	1.622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0.013	0.190	0.426
17	당류와 설탕과자	0.017	0.052	0.092
18	코코아,코코아조제품	-0.046	0.704	1.576
19	곡물,곡물분,전분,밀크의 조제품,베이커리제품	-0.001	-0.018	-0.038
20	채소,과실,견과류,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0.001	-0.000	-0.000
21	각종 조제식료품	-0.005	0.079	0.176
22	음료,알코올,식초	-0.015	0.233	0.522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조제사료	-0.030	0.453	1.015
24	담배,제조한 담배대용물	0.007	0.338	0.692
25	소금,황,토석류,석고,석회,시멘트	-0.000	-0.000	-0.000
26	광,슬랙,회	-0.019	-0.040	-0.073
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	-0.001	-0.001	-0.002
28	무기화학품,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무기화합물	0.000	0.000	0.000
29	유기화학품	0.082	0.075	0.063
30	의료용품	0.075	0.068	0.058
31	비료	0.005	0.005	0.004
32	유연,염색엑스,탄닌과 그 유도체,염료,안료,페인트,퍼티,잉크	0.009	0.008	0.007
33	정유와 레지노이드,조제항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	0.031	0.028	0.024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왁스,연마조제품,양초,조형용 페이스트	0.007	0.007	0.006
35	단백질계물질,변성전분,골루우,효소	0.046	0.042	0.036
36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합금,특정가연성조제품	0.023	0.021	0.018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0.025	0.023	0.020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0.024	0.022	0.019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062	0.056	0.048
40	고무와 그 제품	0.051	0.047	0.040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0.013	-0.020	-0.033
42	가죽제품,동물거트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기타 유사제품	-0.001	-0.001	-0.001
43	모피,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0.002	-0.003	-0.005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0.006	-0.010	-0.017
45	코르크와 그 제품	-0.056	-0.102	-0.171
46	짚,에스파르토,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지조세공물	-0.002	-0.004	-0.007
47	목재펄프,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지,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0.008	0.009	0.007
48	지와 판지,제지용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0.030	0.033	0.025
49	인쇄서적,신문,회화,기타 인쇄물,수제문서,타이프문서,도면	0.024	0.027	0.020
50	견	0.004	0.002	-0.000
51	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0.175	0.105	-0.006
52	면	0.010	0.006	-0.000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0.153	0.092	-0.005
54	인조장섬유	0.027	0.016	-0.001
55	인조단섬유	0.067	0.040	-0.002
56	위딩,펠트,부직포,특수사,끈,코오디지,로페스,케이블과	0.367	0.220	-0.013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0.026	0.016	-0.001
58	특수직물,더후트한 섬유직물,레이스,태피스트리,트리밍과 자수포	0.002	0.001	-0.000
59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공업용방직용 섬유제품	0.017	0.010	-0.001
60	메리아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0.014	-0.020	-0.031
61	메리아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0.006	-0.009	-0.013
62	의류와 그 부품 (메리아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0.045	-0.068	-0.103

코드	품목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세트,중고의류,중고 방직용섬유제품,넝마	-0.009	-0.014	-0.021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0.010	-0.015	-0.023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0.001	-0.002	-0.003
66	산류,지팡이,시트스틱,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0.002	-0.004	-0.006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조화,인모제품	-0.013	-0.020	-0.032
68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0.000	-0.000	-0.001
69	도자제품	-0.006	-0.016	-0.030
70	유리와 유리제품	-0.004	-0.010	-0.020
71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주화	-0.012	-0.031	-0.060
72	철강	-0.013	0.007	0.035
73	철강의 제품	-0.009	0.005	0.026
74	동과 그 제품	-0.003	0.002	0.009
75	니켈과 그 제품	-0.015	0.008	0.042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0.001	0.001	0.003
78	연과 그 제품	-0.012	0.006	0.033
79	아연과 그 제품	-0.000	0.000	0.001
80	주석과 그 제품	-0.000	0.000	0.000
81	기타 비금속,서메트,이들의 제품	-0.001	-0.002	-0.004
82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0.004	-0.010	-0.020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0.005	-0.013	-0.025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0.000	-0.004	-0.009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0.002	-0.016	-0.037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0.009	-0.023	-0.042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018	-0.001	0.038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0.118	-0.306	-0.557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0.003	-0.008	-0.015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등	0.000	-0.000	-0.001
91	시계와 그 부분품	0.000	-0.003	-0.007
92	약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000	-0.000	-0.000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000	-0.000	-0.000
94	가구와 침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물	-0.009	-0.016	-0.027
95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000	-0.002	-0.004
96	잡품	-0.000	-0.001	-0.001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0.001	-0.004	-0.010

## 제 2 절 제조업 부문 기본 대응방안

### 1. 산업별 영향

#### 1) 자동차 및 부품산업

##### (1) 자동차산업의 영향

전라북도 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산업은 GM대우, 현대와 타타대우상용차가 전북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산능력은 445,000대이다. 3개사의 종업원은 2002년 557명에서 2005년에 7,892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까지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려 10,855명을 고용하고 있다.

〈표 4-7〉 도내 자동차 생산 현황

(단위 : 대, 명, 억 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생산능력	445,000	445,000	445,000	445,000	445,000	445,000	445,000	
	합계	129,203	236,963	376,627	467,735	522,390	570,723	503,008	
	승용차	73,709	113,406	175,334	200,403	242,600	258,000	217,027	
	상용차	55,494	53,333	55,047	55,802	58,519	68,867	68,981	
	KD	-	70,224	146,246	211,530	221,271	243,856	217,000	
	종업원	557	616	669	7,892	8,016	10,421	10,578	
	매출액	-	16,564	25,425	47,174	47,947	64,476	63,440	
GM대우 (군산공장)	생산능력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승용차	73,709	113,406	175,334	200,403	242,600	258,000	217,027	
	KD	-	70,224	146,246	211,530	221,271	243,856	217,000	
	주요차종	라세티, 레조							
	종업원	-	-	-	4,000	4,000	4,000	4,000	
현 대 (전주공장)	생산능력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상용차	50,546	48,612	50,255	51,145	50,000	57,315	58,000	
	주요차종	중대형 버스, 25톤이상 트럭							
	종업원	-	-	-	3,152	3,200	5,200	5,300	
	매출액	-	-	-	19,000	19,000	27,000	26,230	
타타대우	생산능력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상용차	4,948	4,721	4,792	4,657	8,519	11,552	10,981	
	주요차종	특장차, 5톤이상 트럭							
	종업원	557	616	669	740	816	1,221	1,278	
	매출액	-	2,655	2,960	3,649	4,937	6,476	7,23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



2005년 GM대우의 라세티와 레조의 생산과 현대의 중대형버스의 생산으로 고용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매출액은 2003년의 16,564억 원에서 2009년에는 64,166억 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는 2005년 GM대우의 군산공장 조업과 현대전주공장의 중대형버스의 생산으로 시작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부품산업 또한 성장하였다. 2003년 125개 업체에서 2009년에는 284개 업체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또한 16,358억 원에서 2009년에는 46,4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종업원 수 또한 2003년의 8,814명에서 2009년의 12,616명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산업과는 달리 업체 수에서나 매출액에서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표 4-8〉 도내 자동차 부품 현황

(단위 : 개, 억 원,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업 체 수	125	142	152	179	221	253	284
매 출 액	16,358	20,938	23,109	33,572	39,426	42,822	46,485
종업원 수	8,814	9,808	10,152	11,335	11,792	12,526	12,616

자료 : 전라북도, 통계로 본 전북의 모습

전북 자동차 부품업체는 2005년 바디업체가 59개, 샤시 52개 전장, 8개, 기타 33개 업체였으며 2008년에는 바디 95개, 샤시 80개, 전장 14개, 기타 43개로 바다와 샤시 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2) 한·중 FTA로 인한 전라북도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과 중국은 세계의 제 4, 5대 생산국으로 한국은 생산의 대부분을 수출을 하고, 중국은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한다. 전라북도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HSK 2단위의 분석을 보면 자동차관련 전라북도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대 중국 수출액이 391,505천불에서 2009년에는 62,313천불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대 중국 수입은 2005년의 3,130천불에서 2009년에는 32,053천불로 급격히 증가하여 FTA로 인하여 자동차분야의 장기적인 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중국의 수입관세가 제거되면 중국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중국에서의 중국뿐 아니라 타 국가와의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관세가 0이 되면 중국의 직접투자 비중을 줄이고 승용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높이고 부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바뀌어 질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의 임금과 현재 생산시설이 소비시장으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적재산권과 관세를 낮춤으로 해서 중국의 직접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도 상용차와 부품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직접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2000년 초 비용에 민감한 기업들이 이전을 한 이후 그 추세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FTA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이나 수출의 증가보다는 수입의 증가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3에 의하면 전체적인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역수지의 적자가 예상된다.

## 2)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및 대응방안

중국은 세계에서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가장 많은 나라이며 대부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그리고 중동의 국가로부터 수입을 한다. 한때 시설이 과잉 되었으나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었으며 제품의 40%가 중국에 수출한다.

중국과의 석유화학 부문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세계의 제 4, 5대 생산국으로 한국은 생산의 대부분을 수출을 하고 중국은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한다. 전라북도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전라북도는 순수출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의 이 산업에서의 관세는 비슷하다. 중국의 경우는 6.20%인 반면 한국은 5.93%이다. 품목에 따라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5~10% 사이이다. 우리

나라는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화학제품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양적인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관리체계의 미비, 높은 생산단가, 낮은 집중도로 인한 비효율적 공정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당분간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FTA는 한국과 전라북도에 이 분야에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낮은 수입과 중국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수요를 볼 때 FTA는 전복으로 하여금 비교우위가 있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정밀화학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비용의 절감을 추진하고 있어 FTA로 관세가 제거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이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의 철폐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가격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화합물을 포함한 석유화학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유를 포함한 특정품목 위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3) 섬유 산업의 경쟁력 및 대응방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노동 집약적인 섬유산업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 제조업의 23%가 이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마진율의 하락, 수출단가의 하락, 반덤핑과세와 같은 보호무역으로 인하여 섬유산업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한국과 전북의 경우에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이 되었고 많은 전라북도 섬유산업 업체들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생산지를 이전하였다.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전북에서 섬유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은 타 제품에 비해 섬유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종재에 대한 관세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보다 높다. 경쟁력을 비교하면 남너정장, 저지, 자켓, 니트 등과 같은 제품에 있어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다.

FTA로 인한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의 철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중국으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한국 및 전북의 섬유 산업을 더 사양산업화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은 수출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 산업에서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 의하면 섬유산업의 수출과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은 품목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과 수입이 각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은 신소재의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만 FTA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성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2. FTA에 대한 대응방안

### 1) 경쟁력 강화 지원

#### (1) 현지마케팅 강화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섬유 등 전라북도의 주력 수출품목의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 및 중소 규모의 기계업체에 대한 국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섬유산업 또한 특화된 국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하고 조달시장 및 대형 유통망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경제사회시스템이 상이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유통망의 확보가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므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유통망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기업 협력 강화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전북과 중국기업 간 투자유치 및 산업 내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업이 더 이상 비용 비교우위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고부가가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라북도내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FTA로 인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결성이 중요하므로 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투자유치 및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3) 기업 지원 강화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R&D의 확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부분 가공무역이어서 산업 내에서 분업을 이룰 수 있는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 및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2)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

### (1) 피해분야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구조조정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에 경제 및 사회시스템이 우리나라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가 이와 연계하여 교역을 확대하고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2)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 발굴

중국과의 FTA는 인적 및 물적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므로 기존에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에서 일부 성공적인 진출을 한 것을 벤치마킹 삼아 전북에서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및 중국 기업과 연계한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시장을 진출할 때 중국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은 다른 도전이 있겠지만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 **3) 지원 인프라 강화**

#### **(1)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대륙은 지역별로 특성이 뚜렷하여 만일 한 기업이 서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전북에서 유학을 하고 본국에 돌아갔으므로 이들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출 및 기업지원 전략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DB화 작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중국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중국은 전북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이므로 수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중국의 시장동향, 무역규제사항, 국제통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제 5 장



## 농축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제 1 절 농업 분야의 파급영향

제 2 절 농업·농촌 부문 기본 대응방안





## 제 5 장 농축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 제 1 절 농업 분야의 파급영향

#### 1. 개요

많은 부분 농산물은 중국과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영향은 다른 국가와의 FTA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의 경우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축산, 과수, 곡물, 채소, 특작 등 농업 전 분야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관세철폐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중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대체시켜 결국 농가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며, 특히 축산 및 과수산업의 비중이 높아 관련 농가를 중심으로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중 FTA로 인해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분야는 농수산물 분야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품을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산업구조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한·중 FTA는 기존 FTA와 달리 수출가능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 중국 농식품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한·중 FTA 추진과 더불어 기존에 체결한 DDA/FTA의 시장개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대교체 등 전북 농업의 중장기 구조변화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한·중 FTA가 전라북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전라북도 농업 현황

### 1) 농림업생산액

〈표 5-1〉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5		2000		2005		2008		연평균 증감률	
	부가가치	산업비중	부가가치	산업비중	부가가치	산업비중	부가가치	산업비중		
전국	총부가가치	523,875	100.0%	623,720	100.0%	780,094	100.0%	889,790	100.0%	4.2%
	농림어업	24,130	4.6%	25,751	4.1%	25,649	3.3%	27,879	3.1%	1.1%
	제조업	126,505	24.1%	163,159	26.2%	215,886	27.7%	259,274	29.1%	5.7%
	서비스업	373,240	71.2%	434,810	69.7%	538,559	69.0%	602,637	67.7%	3.8%
전북	총부가가치	17,439	100.0%	19,885	100.0%	23,169	100.0%	26,028	100.0%	3.1%
	농림어업	2,402	13.8%	2,443	12.3%	2,560	11.0%	2,952	11.3%	1.6%
	제조업	3,325	19.1%	4,402	22.1%	5,345	23.1%	6,051	23.2%	4.7%
	서비스업	11,712	67.2%	13,040	65.6%	15,264	65.9%	17,025	65.4%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2) 농림업취업자수

취업자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하는데 비해서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국의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1990년 3,237천명에서 2000년 2,243천명, 2008년 1,699천명으로 감소
- 전체 취업자 대비 농업부문 비율은 1990년 17.9%에서 2000년 10.6%, 2008년 7.2%로 감소
- 전체 취업자는 1990년대에는 연간 1.58% 증가, 2000년대에는 1.36% 증가
- 농업부문 취업자는 1990년대에는 3.6% 감소, 2000년대에는 3.46% 감소

전북 취업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정체상태인데 비해서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북의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1990년 301천명에서 2000년 223천명, 2008년 175천명으로 감소

- 전체 취업자 대비 농업부문 비율은 1990년 37.5%에서 2000년 26.5%, 2008년 21.1%로 감소
- 전체 취업자는 1990년대에는 연간 0.5% 증가, 2000년대에는 0.216% 감소
- 농업부문 취업자는 1990년대에는 2.95% 감소, 2000년대에는 2.98% 감소

그러나 전북에서 농림업부문의 중요성은 취업자 수에서도 나타난다.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부문은 취업자 비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전북 농업부문 취업자는 21.1%로 전국 농업부문 취업자의 7.2%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전북의 경우 농업부문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취업에서 농업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2008년 전북 농업부문 취업자는 21.1%로 전국 농업부문 취업자의 7.2%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전북의 경우 농업부문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취업에서 농업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표 5-2〉 농업부문 고용현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8	연평균 증감률	
							1990-2000	2000-2008
전국	전체	18,085	20,414	21,156	22,856	23,577	1.58%	1.36%
	농림어업	3,237	2,403	2,243	1,815	1,693	-3.60%	-3.46%
	(비율)	(17.9)	(11.8)	(10.6)	(7.9)	(7.2)		
전북	전체	802	857	843	827	829	0.50%	-0.21%
	농림어업	301	239	223	166	175	-2.95%	-2.98%
	(비율)	(37.5)	(27.9)	(26.5)	(20.1)	(2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 전라북도 시군별 농가인구수<sup>3)</sup>

전국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군단위 인구는 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북 인구는 1992년 2,027천명에서 2000년 1,999천명으로 연평균 -0.2%씩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이후에는 감소율이 연평균 -0.9%로 2008년 현재 1,855천명 임
- 완주를 제외한 군지역들은 연평균 2-3%대의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표 5-3〉 전북 시군별 인구현황

구 분	1992	2000	2005	2008	연평균 증감율	
					1992-2000	2000-2008
전국	44,503,200	47,732,558	48,782,274	49,540,367	0.9%	0.5%
전라북도	2,027,454	1,999,255	1,885,335	1,855,772	-0.2%	-0.9%
전주시	538,807	620,521	621,749	631,532	1.8%	0.2%
군산시	269,261	277,491	263,120	263,845	0.4%	-0.6%
익산시	316,350	334,324	318,506	309,269	0.7%	-1.0%
정읍시	159,836	152,022	129,050	122,842	-0.6%	-2.6%
남원시	114,421	103,571	93,670	88,356	-1.2%	-2.0%
김제시	138,904	115,865	102,720	95,807	-2.2%	-2.3%
완주군	89,426	84,009	83,651	83,757	-0.8%	0.0%
진안군	46,102	31,273	29,021	27,230	-4.7%	-1.7%
무주군	35,219	29,207	25,876	26,017	-2.3%	-1.4%
장수군	35,446	30,051	24,755	23,864	-2.0%	-2.8%
임실군	50,234	37,514	32,511	31,133	-3.6%	-2.3%
순창군	44,828	34,587	32,012	30,920	-3.2%	-1.4%
고창군	95,836	74,104	63,676	60,328	-3.2%	-2.5%
부안군	92,784	74,716	65,018	60,872	-2.7%	-2.5%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농가인구의 경우 전국에 비해 전라북도가 다소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 국내 농가인구는 1990년대 연간 약 4.3% 감소, 2000년대 약 2.9% 감소
- 전북 농가인구는 1990년대 연간 약 5.5% 감소, 2000년대 약 3.6% 감소

3) 시군별 취업자수는 2008년부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되었다. 따라서 시군별 농업부문 취업자수를 대리할 수 있는 통계로 시군별 농가인구수를 사용하였다.

시군별 농가인구는 임실군, 진안군, 고창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 1990년대의 경우 농가인구는 임실군이 7.1%, 진안군이 6.4% 감소
- 2000년대의 경우 농가인구는 부안군이 5.9%, 진안군이 5.1% 감소

농가인구의 감소율은 인구감소율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전북의 농가인구 비중은 1992년 30.0%에서 2008년 현재 15.6%까지 감소하였음
- 농가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1%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농가인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지역 농가인구의 비율은 1992년에는 대부분 5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현재 30-40%대를 나타내고 있음(진안 63.8→42.0%, 임실 63.4→39.7, 장수 62.0→44.0, 고창 57.1→40, 부안 49.0→29.1)

그러나 전북에서 농림업부문의 중요성은 시군별 농가인구 비중에서도 나타난다.

- 전주, 익산, 군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30-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5-4〉 전북 시군별 농가인구 변화

구 분	1992	2000	2005	2008	연평균 증감률	
					1992-2000	2000-2008
전국	5,706,793 (12.8)	4,031,065 (8.4)	3,433,573 (7.0)	3,186,753 (6.4)	-4.3%	-2.9%
전라북도	608,961 (30.0)	388,907 (19.5)	318,998 (16.9)	290,123 (15.6)	-5.5%	-3.6%
전주시	27,063 (5.0)	18,145 (2.9)	19,638 (3.2)	17,279 (2.7)	-4.9%	-0.6%
군산시	45,644 (17)	27,826 (10)	24,592 (9.3)	21,450 (8.1)	-6.0%	-3.2%
익산시	70,062 (22.1)	48,275 (14.4)	39,705 (12.5)	39,868 (12.9)	-4.5%	-2.4%
정읍시	65,627 (41.1)	40,406 (26.6)	32,313 (25.0)	29,722 (24.2)	-5.9%	-3.8%
남원시	51,335 (44.9)	33,177 (32)	27,688 (29.6)	23,478 (26.6)	-5.3%	-4.2%

구 분	1992	2000	2005	2008	연평균 증감률	
					1992-2000	2000-2008
김제시	70,238 (50.6)	45,305 (39.1)	35,033 (34.1)	31,018 (32.4)	-5.3%	-4.6%
완주군	49,082 (54.9)	33,596 (40)	27,005 (32.3)	27,702 (33.1)	-4.6%	-2.4%
진안군	29,393 (63.8)	17,345 (55.5)	12,114 (41.7)	11,444 (42)	-6.4%	-5.1%
무주군	19,707 (56.0)	13,434 (46)	10,537 (40.7)	10,147 (39)	-4.7%	-3.4%
장수군	21,987 (62.0)	13,608 (45.3)	12,039 (48.6)	10,504 (44)	-5.8%	-3.2%
임실군	31,844 (63.4)	17,616 (47)	14,280 (43.9)	12,347 (39.7)	-7.1%	-4.3%
순창군	26,877 (60.0)	18,154 (52.5)	14,658 (45.8)	13,314 (43.1)	-4.8%	-3.8%
고창군	54,683 (57.1)	33,172 (44.8)	28,106 (44.1)	24,116 (40)	-6.1%	-3.9%
부안군	45,420 (49.0)	28,848 (38.6)	21,290 (32.7)	17,734 (29.1)	-5.5%	-5.9%

자료 : 통계청, 농업조사

참고 : ( )는 인구대비 농가인구 비율

#### 4) 전라북도 농가소득

전북의 농가소득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현재, 전북 농가소득은 26,326천원으로 전국평균 27,829천원보다 약 5.4%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 15개 시도광역시 중 8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남(울산 37,841천원, 제주 34,330천원, 경기 33,655천원 순)

농업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농업소득은 연평균 0.2% 증가하는 데 그쳐, 1998년에는 43.1%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37.8%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
- 이전소득은 연평균 3.9% 증가하여, 1998년에는 27.3%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34.5%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

〈표 5-5〉 전북 농가소득 현황

(단위 : 천원, 2005년 불변가격)

구 분	1998		2000		2005		2008		연평균 증감률	
	부가가치	산업비중	부가가치	산업비중	부가가치	산업비중	부가가치	산업비중		
전국	농가소득	24,938	100.0%	26,330	100.0%	30,503	100.0%	27,829	100.0%	1.1%
	농업소득	11,068	44.4%	12,053	45.8%	11,815	38.7%	8,802	31.6%	-2.3%
	농외소득	8,504	34.1%	8,785	33.4%	9,884	32.4%	10,349	37.2%	2.0%
	이전소득	5,367	21.5%	5,492	20.9%	8,803	28.9%	8,677	31.2%	4.9%
전북	농가소득	22,703	100.0%	23,099	100.0%	28,238	100.0%	26,326	100.0%	1.5%
	농업소득	9,788	43.1%	11,518	49.9%	12,718	45.0%	9,946	37.8%	0.2%
	농외소득	6,725	29.6%	6,863	29.7%	6,794	24.1%	7,296	27.7%	0.8%
	이전소득	6,191	27.3%	4,718	20.4%	8,726	30.9%	9,084	34.5%	3.9%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참고 :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5) 품목별 생산비중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생산비중이 높은 분야는 곡물과 축산으로, 특히 축산분야의 한우, 돼지, 육계는 한·EU FTA 체결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전망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2009년 현재, 생산액 기준으로 품목별 비중이 가장 높은 농업부문은 곡물분야로 전국대비 15.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축산 12.1%, 특작 8.5%. 채소 8.1%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가 곡물분야의 맥류와 축산분야의 육계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생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타시도에 비해 비중이 높은 작목은 미곡, 근채류, 한우, 돼지로 나타남

〈표 5-6〉 농가 품목별 생산비중

구 분		전국		전북			
		생산량 <sup>1)</sup>	생산액 <sup>2)</sup>	생산량	생산량 비중	생산액 <sup>3)</sup>	생산액 비중
곡물 (톤,10억)	미곡	4,916,080	8,680	797,850	16.2%	1,409	
	맥류	167,406	182	41,364	24.7%	45	

구 분		전국		전북			
		생산량 <sup>1)</sup>	생산액 <sup>2)</sup>	생산량	생산량 비중	생산액 <sup>3)</sup>	생산액 비중
	잡곡	88,012	58	2,840	3.2%	2	
	두류	155,102	455	7,837	5.1%	23	
	서류	226,919	489	25,148	11.1%	54	
	전체	5,553,478	9,864	875,039	15.8%	1,533	15.5%
채소 (톤,10억)	과채류	2,355,474	3,876	213,431	9.1%	351	
	엽채류	3,098,648	1,059	278,305	9.0%	95	
	근채류	1,355,230	406	189,158	14.0%	57	
	조미채소	2,543,246	1,975	112,597	4.4%	87	
	전체	14,906,076	7,316	1,668,530	11.2%	590	8.1%
과수 (톤,10억)	사과	494,491	813	26,074	5.3%	43	
	배	418,368	250	14,495	3.5%	9	
	복숭아	198,317	149	11,651	5.9%	9	
	포도	332,978	505	16,207	4.9%	25	
	감	416,705	672	19,559	4.7%	32	
	감귤	752,837	907	0	0.0%	-	
	기타	1,436,845	215	26,765	1.9%	4	
	전체	2,880,999	3,511	95,192	3.3%	120	3.4%
축산 (톤,10억)	한육우	2,634,705	4,095	305,788	11.6%	475	
	젖소	444,648	1,779	33,346	7.5%	133	
	돼지	9,584,903	5,473	1,150,669	12.0%	657	
	산란계	62,966,992	1,359	3,477,062	5.5%	75	
	육계	67,193,996	2,023	14,651,960	21.8%	441	
	전체	75,631,248	14,729	4,966,865	6.6%	1,782	12.1%
특작 (ha,10억)	특용	74,454	296	8,121	10.9%	32	
	약용	11,467	646	855	7.5%	48	
	전체	85,921	942	8,976	10.4%	80	8.5%
기타 (ha,10억)	전체	148,143	5,003	30,466	20.6%	1,029	20.6%
전체		41,364				5,135	12.4%

참고 : 1)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축산 - 가축동향조사 / 특작, 기타 - 농업면적조사

2) 통계청, 농림업생산지수

3) 추정액 : 전국생산액 \* 전라북도생산량비중



### 3. 대 중 농산물 무역구조

#### 1) 주요 경제지표

##### (1) 농업 생산

중국의 농업 생산액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부문의 성장률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추세에 있다. 농업 GDP는 1990년 7,662억 위안에서 2006년 4조 2,424억 위안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표 5-7>. 그러나 같은 기간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서 20%로 낮아졌다.

<표 5-7>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농업생산액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GDP(억 위안)	18,548	60,794	99,215	183,868	210,871
GDP(억 달러)	3,910	7,281	11,982	22,592	26,446
농업생산액(억 위안)	7,662	20,341	24,916	39,451	42,424
농업생산액 비중	41%	33%	25%	21%	20%

자료 : 중국농촌통계연감

<표 5-8> 중국의 작물별 경작 면적

(단위 : 천ha)

구 분	농작물 피종면적	곡물류	두류	서류	유지류	면화	채소	과수
1990	148,362	94,073*	9,193*	9,121	10,900	5,588	6,338	5,179
1995	149,879	89,309	11,232	9,519	13,101	5,422	9,515	8,098
2000	156,300	85,264	12,660	10,538	15,400	4,041	15,237	8,932
2005	155,488	81,874	12,901	9,503	14,318	5,062	19,928	10,035
2006	157,021	83,126	12,434	9,929	13,736	5,409	20,512	10,042

자료 : 중국농촌통계연감

참고 : \* 1991년 자료임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파종 면적의 변화와 비슷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량(收量) 증가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06년 곡물류 생산량은 4억 4,240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5.6% 늘어났다<표 5-9>.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

어났기 때문이다. 곡물류 가운데 쌀과 소맥은 2005년까지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06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옥수수과 대두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1990년 1억 3,250만 톤에서 2006년 1억 8,26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중·단립종 쌀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중·단립종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북 3성의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970만 톤에서 2,13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동북 3성의 쌀 생산량 비중도 7.3%에서 11.7%로 늘어났다. 중·단립종 쌀 재배는 전통적으로 장립종 쌀 생산지역인 양자강 중하류 지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소맥 생산량은 1990년 9,820만 톤에서 2005년 9,74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 1억 45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옥수수 생산량은 1990년에 비해 61.7% 증가한 1억 4,550만 톤으로 나타났다. 대두 생산량은 같은 기간 1,100만 톤에서 1,600만 톤으로 45.5% 증가하였다.

〈표 5-9〉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 천ha, 백만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쌀	재배면적	33,064 (1,635)	30,744 (1,737)	29,962 (2,680)	28,847 (2,872)	29,295 (3,216)
	생산량	132.5 (9.7)	129.7 (10.3)	131.5 (17.9)	126.4 (20.1)	182.6 (21.3)
소맥	재배면적	30,753	28,860	26,653	22,793	22,962
	생산량	98.2	102.2	99.6	97.4	104.5
옥수수	재배면적	24,401	22,776	23,056	26,358	26,971
	생산량	90.0	112.0	106.0	139.4	145.5
대두	재배면적	7,560	8,127	8,307	9,591	9,280
	생산량	11.0	13.5	15.4	16.4	16.0
곡물 전체*	피종면적	94,073**	89,309	85,264	81,874	83,126
	생산량	418.8	429.6	420.6	444.1	442.4

자료 : 중국농촌통계연감, 2005 전국농업통계적요

참고 : 쌀은 정곡 기준. ( )속은 동북 3성의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임

\* 곡물류는 식량작물에서 서류를 제외한 통계치 임

\*\* 1991년 자료임

중국의 채소 생산량은 2002년 5억 2,861만 톤에서 2006년 6억 5,96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표 5-10>.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인 5종 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가운데 무를 제외한 4개 품목의 재

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배추 재배면적은 1990년 35만 헥타르에서 2006년 262만 헥타르로 6.5배 늘어났으며 생산량은 820만 톤에서 1억 310만 톤으로 11.8배 증가하였다. 생산량이 재배면적보다 더 크게 늘어난 이유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고추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25만 헥타르에서 48만 헥타르로 88.9% 늘어났고, 생산량은 480만 톤에서 884만 톤으로 84.2% 증가하였다. 양파 생산량도 재배면적이 1.5배 늘어난 결과 생산량이 500만 톤에서 1,900만 톤으로 2.8배 증가하였다. 재배면적이 2.4배로 늘어난 마늘 생산량은 1,832만 톤으로 1990년 대비 4.8배 늘어났다.

(표 5-10) 중국의 채소 수급 현황

(단위 : 천ha, 천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배추	재배면적	354	580	1,220	2,609	2,624
	생산량	8,203	14,151	23,149	103,083	105,063
무	재배면적	-	-	1,566	1,181	1,220
	생산량	-	-	52,010	39,352	40,032
고추	재배면적	252	326	442	476	-
	생산량	4,801	6,242	8,199	8,844	-
마늘	재배면적	347	402	652	774	837
	생산량	3,923	5,374	12,357	16,541	18,324
양파	재배면적	248	376	666	873	-
	생산량	5,031	8,205	14,150	18,912	-
전체 채소	재배면적	6,338	9,515	15,237	19,928	20,512
	생산량	-	-	528,606*	564,515	659,662

자료 : 중국농촌통계연감

참고 : \* 2002년 자료임

과일 생산량도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재배면적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5년 과일 전체 생산량은 9,599만 톤으로 1990년의 1,874만 톤에 비해 4.1배 증가하였다<표 5-11>. 과일 소비는 소득 탄력적 품목으로,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과 생산량은 2006년 2,606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5.0배 증가하였다.

감귤 생산량은 1990년 486만 톤에서 2006년 1,790만 톤으로 2.7배 늘어났으며, 배 생

산량도 같은 기간 235만 톤에서 1,197만 톤으로 약 4.1배 증가하였다. 포도는 1990년 이후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 생산량은 1990년 대비 6.3배 이상 증가한 579만 톤이었다. 복숭아 생산량도 128만 톤에서 822만 톤으로 늘어났다.

〈표 5-11〉 중국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 천ha, 천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사과	재배면적	1,636	2,954	2,254	1,890	1,899
	생산량	4,319	14,008	20,431	24,011	26,059
배	재배면적	490	869	1,015	1,112	1,087
	생산량	2,353	4,942	8,412	11,324	11,986
포도	재배면적	127	158	283	408	419
	생산량	859	1,742	3,282	5,794	6,270
감귤	재배면적	1,327	1,459	1,272	1,717	1,815
	생산량	4,855	8,225	8,783	15,919	17,898
복숭아	재배면적	518	557	467	677	670
	생산량	1,279	2,770	3,852	7,624	8,215
전체 과일	재배면적	5,179	8,098	8,932	10,035	10,042
	생산량	18,744	42,146	62,251	88,355	95,992

자료 : 중국농촌통계연감

중국의 2006년 육류 생산량은 8,05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였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체 육류 생산량의 64.5%에 해당하는 5,197만 톤이었다<표 5-12>. 그러나 생산 증가율은 다른 육류보다 낮아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쇠고기 생산량은 돼지고기나 가금육에 비해 적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쇠고기 생산량은 750만 톤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가금육 생산량도 1990년 323만 톤에서 1,507만 톤으로 약 3.6배 늘어났다.

〈표 5-12〉 중국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 천ha,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돼지고기	22,811	36,484	40,314	50,106	51,972
쇠고기	1,256	4,154	5,328	7,115	7,500
가금육	3,229	9,347	12,075	14,643	15,066
육류 합계	28,364*	52,000	61,254	77,431	80,515

자료 : 어명근 외(2006)

참고 : \* 기타 육류 가운데 양고기만 합산한 물량임

## (2) 농산물 교역

### ① 농산물 수출입

2006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 총액은 310억불로 전체 수출액 9,691억불의 3.2%를 차지하였다<표 5-13>. 농산물 수출액 비중은 1995년 9.8%에서 2000년 6.3%로 감소하였으며 2004년부터 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농산물 수입총액은 2006년 약 320억불로 1995년 122억불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총액에서 농산물 비중은 9.2%에서 4%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1995년 24억 5천만 불에서 2000년 44억 5천만 불로 늘어났으나 2004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다. 2006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약 10억불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채소류는 2000년 이후 중국 최대의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채소류 수출액은 약 39억 8천만 불로, 축산물(12억 2천만 불)과 곡물류(11억 5천만 불) 수출액을 합한 액수보다 많았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수출농산물은 옥수수, 돼지고기(생축 포함), 차(茶), 땅콩 등이었다. 그러나 옥수수 수출액은 작황에 따라 연도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액도 질병 발생 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채소류와 과일류, 축산물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토지사용적인 곡물류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표 5-13>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1995	2000	2004	2005	2006
수출총액	1,487.8	2,492.0	5,933.7	7,620.0	9,690.7
농산물 수출액	146.2	157.0	230.9	275.8	310.3
농산물수출비중(%)	9.8	6.3	3.9	3.3	3.2
수입총액	1,320.8	2,250.9	5,614.2	6,601.2	7,916.1
농산물 수입액	121.7	112.5	279.4	287.1	319.9
농산물수입비중(%)	9.2	5.0	5.0	4.4	4.0
농산물 무역수지	24.5	44.5	-48.5	-11.3	-9.6

자료 : 어명근 외(2008) 및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www.kati.net)

## ②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동향

곡물류 수출입 물량은 연도별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쌀은 1995년 164만 톤을 수입한 이후 2000년 295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2007년에도 130만 톤 이상을 수출하였다<표 5-14>. 소맥은 1995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으나 이후 작황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7년에는 8만 여 톤을 수입한 반면 70만 톤 이상을 수출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인 옥수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수입이 많았으나 이후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어 2000년 수출량은 1,000만 톤을 넘어선 바 있다. 2007년에는 480만 톤을 수출하였다.

대두는 2000년대 중국의 최대 수입농산물이 되었다. 대두는 1995년까지 수출량이 더 많았으나 2000년 수입량이 1,000만 톤을 넘어선 이래 2005년 2,660만 톤, 그리고 2007년 3,0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주로 차유용과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대두 관련 품목의 수입은 대두박과 대두유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4〉 중국의 식물작물 수출입 동향

(단위 : 천 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쌀	수출	405.0	47.0	2,953.0	672.0	1,236.9	1,339.7
	수입	63.0	1,642.0	240.0	520.0	730.0	471.5
소맥	수출	6.0	16.0	263.0	260.0	395.1	735.0
	수입	13,487.0	11,586.0	876.0	3,540.0	410.0	83.4
옥수수	수출	3,405.0	108.0	10,485.0	8,611.0	3,073.9	4,847.5
	수입	5,440.0	5,181.0	3.0	4.0	65.1	35.1
대두	수출	940.0	375.0	213.0	396.0	379.0	430.3
	수입	1.0	294.0	10,419.0	26,590.0	28,284.2	30,818.3

자료 : 어명근 외(2008) 및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www.kati.net)

참고 : 쌀은 정곡 기준

중국의 채소류 교역은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고추

와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수출이 많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5-15>. 마늘 수출은 1990년 11만 7천 톤에서 2007년 136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고출 수출량도 같은 기간 천 톤에서 7만 6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표 5-15> 중국의 채소 수출입 동향

(단위 : 천 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배추	수출	26.8	60.2	77.7	90	-	-
	수입	7.3	14.3	14.1	12	-	-
무와 당근	수출	-	37	62.3	389.9	430.9	418.6
	수입	-	-	-	0.3	-	1.5
고추	수출	1.1	4.5	5.3	92.2	93.1	76.3
	수입	0.4	0.5	1.8	1.1	0.2	2.6
마늘	수출	117	141.1	362.9	1,155.60	1,161.0	1,362.6
	수입	-	-	0.1	0.4	0.3	0.3
양파	수출	20.1	58.2	165.7	535.3	531.1	616.8
	수입	31.2	42.4	0.6	0.2	2.4	0.4

자료 : 이명근 외(2008) 및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www.kati.net)

과일류 역시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으며, 특히 사과와 배, 감귤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과 수출량은 1990년 약 6만 톤에서 2007년 100만 톤을 넘었다<표 5-16>. 배 수출도 같은 기간 4만 4천 톤에서 4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감귤 수출량은 1990년까지 전혀 없었으나 1995년 13만 톤, 그리고 2007년 약 40만 톤이 수출되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순수입 품목인 포도 수출도 늘어나고 있어 2007년 수출은 5만 5천 톤으로 4만 3천 톤에 그친 수입량보다 많아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복숭아도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복숭아 수출량은 약 2만 4천 톤이었다.

<표 5-16> 중국의 과일 수출입 동향

(단위 : 천 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사과	수출	62.4	108.9	297.7	824.1	804.3	1,019.1
	수입	98.0	13.7	25.5	33.2	31.1	36.4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배	수출	44.3	90.1	146.4	368.3	375.3	404.9
	수입	3.6	0.2	0.6	0.1	-	-
포도	수출	0.7	4.9	1.6	34.6	34.3	55.4
	수입	14.4	5.0	53.2	68.8	46.0	42.8
감귤	수출	-	131.8	191.4	426.1	335.8	397.6
	수입	-	2.2	53.3	53.9	-	-
복숭아	수출	0.8	1.6	2.4	17.1	20.2	24.4
	수입	-	0.2	1.0	0.1	-	0.1

자료 : 어명근 외(2008) 및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www.kati.net)

축산물 수출은 돼지고기와 생축(돼지 및 가금류)이 주도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은 1990년 12만 톤에서 2006년 27만 톤까지 늘었으나 2007년 13만 톤으로 줄었다<표 5-17>. 돼지 생축 수출도 1990년 300마리에서 2007년 160만 마리로 감소하였다. 가금 생축 수출량은 1995년 5천만 마리를 넘었으나 이후 조류 독감 발생 등으로 2006년 1,900만 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의 축산물 수입은 가금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수입량은 87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07년 77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5-17> 중국의 축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 천 톤, 만 마리)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돼지고기	수출	120.0	150.0	50.0	250.0	270.0	133.6
	수입	-	3.0	177.0	200.0	-	85.8
쇠고기	수출	100.0	20.0	20.0	20.0	30.0	29.9
	수입	-	4.0	10.0	14.0	-	-
가금육	수출	38.0	249.0	357.0	216.0	236.6	239.9
	수입	68.0	264.0	871.0	384.0	572.9	774.5
산돼지	수출	300.0	253.0	203.0	176.0	172.0	160.9
산가금	수출	4,784.0	5,263.0	4,890.0	2,502.0	1,899.0	-

자료 : 어명근 외(2008) 및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www.kati.net)



## 2)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 (1) 농업 생산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은 1992년 수교 이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총액은 약 820억불로 2000년보다 3.4배 증가하였다<표 5-18>.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같은 기간 1.5배 증가한 2억 9,500만 불에 그쳐 농림축산물 수출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에서 0.4%로 낮아졌다.

2007년 한국의 대 중 수입총액은 630억불로 2000년 128억불의 4.9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6억 3,700만 불에서 31억불로 늘었지만 농림축산물 수입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4.9%로 하락하였다.

대 중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56억 5,600만 불에서 2007년 190억불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12억 8,700만 불에서 28억 600만 불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 전체의 대 중 무역수지 흑자액은 2005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5-18> 한·중 농산물 수출입

(단위 : 백만 불)

구 분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수출	국가 전체	9,144	18,455	18,190	35,110	61,915	81,985
	농림축산물 (비율 %)	95.3 (1.0)	117.6 (0.6)	108.7 (0.6)	166.1 (0.5)	231.2 (0.4)	294.6 (0.4)
수입	국가 전체	7,401	12,799	13,303	21,909	38,648	63,028
	농림축산물 (비율 %)	637.2 (8.6)	1,405.0 (11.0)	1,111.2 (8.4)	2,061.6 (9.4)	2,216.5 (5.7)	3,100.7 (4.9)
무역 수지	국가 전체	1,743	5,656	4,887	13,201	23,267	18,957
	농림축산물	-541.9	-1,287	-1,003	-1,896	-1,985.3	-2,806.1

자료 : 이명근 외(2008) 및 농수산물유통공사(www.af.or.kr, www.kati.net)

2007년 한국의 대 중 최대 수출 농산물은 5,400만불 수출된 자당이다. 라면 수출액은 2,490만 불, 난초는 2,180만 불 이었다. 2000년 4,000만불 이상 수출되던 합판은 2007년 40만 불로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섬유판도 같은 기간 680만 불에서 40만 불로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5-19>.

대 중 수출액이 1,000만 불을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두 개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자당, 라면, 난초, 소스류, 밤, 커피 조제품 등 여섯 개로 늘었다. 그 밖에 비스킷과 곡류 조제품도 1,000만 불에 육박할 정도로 대 중 농산물 수출이 점차 고급화, 고가화 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수출액 상위 10개 수출품목 가운데 2000년 10대 수출품에 포함되었던 품목은 자당과 라면, 밤, 베이커리 제품 등 4개에 불과하여 대 중 농산물 수출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수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품목은 자당, 라면, 난초, 소스류, 커피 조제품, 캔디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품목들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거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농림축산물의 대 중 수출은 고가의 가공식품과 고급화된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품목 구성이나 수출액 규모가 불안정한 실정이다.

〈표 5-19〉 한·중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불)

품 명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농림축산물 합계	95.3	117.6	108.7	166.1	231.2	294.6
자당	14.8	12.0	19.7	24.0	36.8	53.9
라면	0.5	2.2	2.9	12.9	12.6	24.9
난초	-	1.2	2.2	9.6	13.9	21.8
소스류	0.1	-	4.5	8.2	11.2	18.6
밤	1.5	1.9	3.1	21.6	20.7	16.7
커피 조제품	-	0.7	0.8	6.5	13.4	16.0
비스킷	-	1.2	1.7	2.0	18.3	9.6
곡류 조제품	-	1.8	1.1	0.8	7.7	9.4
기타 베이커리 제품	1.6	2.5	1.9	3.6	1.1	8.3
캔디	3.6	0.2	0.3	1.8	3.9	7.2
권련	15.8	0.4	0.7	3.6	6.8	6.7
기타 소스 제품	-	0.8	1.7	1.3	1.4	5.4
인스턴트면	0.5	0.2	0.7	0.8	2.3	3.9
쇼트닝	0.1	2.0	1.8	3.0	2.6	3.4
채소종사	0.9	3.0	2.2	2.3	3.4	2.9
위스키	0.3	1.9	2.0	3.0	1.6	2.9

품 명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홍삼	1.9	2.8	2.5	2.0	4.1	2.8
된장	0.4	0.1	0.2	0.9	3.1	2.1
혼합조미료	0.4	0.9	1.1	3.4	2.2	2.1
밀가루	0.3	2.8	2.3	1.8	2.1	1.5
검	3.3	0.7	0.7	3.6	9.2	1.4
기타채소	2.2	0.5	0.8	0.7	3.0	0.8
합관	43.1	40.4	20.3	15.3	4.4	0.4
섬유관	0.5	6.8	4.2	2.4	1.6	0.4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www.kati.net)

한편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입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더 빠르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입총액은 약 161억 8,300만 불로 2000년의 84억 5,000만 불에 비해 약 92% 정도 늘어났다<표 5-20>. 같은 기간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하여 중국의 한국 농림축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은 13.1%에서 19.2%로 높아졌다.

2007년 현재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옥수수이다. 옥수수 수입액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 수입총액이 크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대 중 수교 이후 줄곧 최대 수입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수입액은 6억 1,360만 불로 2001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산 옥수수 수입액은 중국 내 작황과 가격에 따라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 2001년 2억 9,900만 불에서 2003년 9억 790만 불로 증가한 바 있다.

중국산 밀 수입액은 2007년 2억 2,590만 불로 합관을 제치고 제2의 수입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05년 300만 불에 불과했던 밀 수입액이 2억불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2007년 이후 지속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합관 수입액도 1억 6,000만 불로 증가하여 제3의 수입품에 올랐다. 최근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김치는 수입액이 1억불을 돌파하였으며, 쌀과 대두, 고추 수입액도 각각 8,000만 불을 넘어섰다.

2007년 쌀과 고추, 대두, 당근 등 대부분 품목의 수입액은 2001년에 비해 평균 5~6배 늘어났으며 김치 수입은 500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품목은 기타 한약재 외에 거의 없다. 최근 국제 곡물류 가격 상승에 따라 옥수수와 쌀,

밀 대두 등 4대 곡물류 수입이 2000년 7억 660만 불에서 2007년 10억 500만 불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서 곡물류 비중은 32.4%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옥수수과 밀 등 일부 품목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양상이지만, 대부분 품목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수출과 달리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 중 농산물 수입액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0〉 한·중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불)

품 명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농림축산물 합계	637.2	1,405.0	1,111.2	2,061.6	2,216.5	3,100.8
옥수수	4.1	659.9	299.0	907.9	820.0	613.6
밀	-	-	37.5	94.8	3.1	225.9
합판	5.3	41.4	44.3	67.0	80.3	159.5
김치	-	0.2	0.2	10.3	51.3	110.8
쌀	-	37.0	18.3	36.0	33.5	83.1
대두	0.1	9.7	12.5	20.1	28.5	82.9
고추	12.6	10.4	14.0	39.4	49.7	80.7
기타 과일	10.5	15.9	19.4	26.0	41.6	58.8
전분박	3.5	2.4	5.1	3.8	25.7	54.5
기타 채소	10.6	21.1	20.1	26.8	31.0	45.2
당근	-	3.1	4.8	14.0	27.9	36.8
참깨	44.0	26.0	16.1	42.9	31.3	34.2
땅콩	6.9	21.0	18.9	21.7	22.8	33.3
마늘	5.7	9.1	15.5	14.6	21.2	31.7
설탕박	3.6	9.3	15.3	16.0	16.1	31.0
대두박	69.2	2.8	3.3	24.4	4.2	26.5
기타 사료	23.5	2.3	4.9	11.9	14.5	25.9
들깨	10.5	4.8	1.3	114.4	12.5	23.5
고사리	7.2	15.9	14.8	16.2	18.4	22.8
팥	7.9	12.5	12.7	12.3	17.3	21.0
앞담배	-	-	1.2	10.2	14.0	18.8
보리	-	2.3	2.3	1.7	5.4	17.5
기타 근채류	-	9.5	10.3	17.6	17.3	16.1
한약재	43.1	35.9	37.0	32.4	35.2	9.8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www.kati.net)

## 4. 한·중 FTA의 전라북도 파급영향

### 1) FTA 추진에 따른 민감품목<sup>4)</sup>

민감 농산물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에 주는 파장일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수입국간 대체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간 각종 FTA 협상추진 시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한·중 FTA 민감 농산물을 선정하였다.

- 제1기준은 한국 및 중국의 가격경쟁력 격차
- 제2기준으로 교역가능성(과거 농산물 수입실적, 관세 유효성, 검역기준)
- 제3의 검토기준은 지역파급영향

각 품목이 이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1, 2, 3기준에서 선정된 민감품목은 <표 5-21>, <표 5-22>, <표 5-23>과 같다.

<표 5-21> 가격경쟁력에 의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4)	쌀, 감자, 콩, 옥수수
특용작물(2)	땅콩, 참깨
채소(6)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과일(3)	사과, 배, 포도
화훼(3)	장미, 카네이션, 국화
축산물(4)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표 5-22> 교역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4)	쌀, 옥수수, 소맥, 대두, 팥
특용작물(2)	땅콩, 참깨, 낙화생, 들깨, 인삼
채소(6)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당근, 무,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과일(3)	사과, 감귤, 감, 복숭아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내용을 수정 발췌

〈표 5-23〉 지역집중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4)	쌀, 감자, 콩, 고구마
특용작물(2)	참깨, 인삼
채소(6)	배추, 상추, 무,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파
과일(3)	참외, 감귤, 포도, 복숭아, 수박, 배, 사과, 단감

이 세 가지 기준에 한 번 이상 포함된 농산물은 총 43개 품목이다. 이 43개 품목에 대한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중 FTA의 민감품목을 총정리 한 것이 <표 5-24>이다. 43개 품목 중 미곡 등 10개 품목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는데, 한국 농가소득 및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미곡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고, 기타 세 가지의 기준 모두에 속하는 8개 품목은 고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기준에 포함된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한 가지 기준에만 포함된 품목을 저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민감품목 중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동식물검역에 따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저민감품목을 제외한 22개 품목이며, 특히 고민감품목은 1차적으로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을 예외하거나 또는 최소 감축을 하도록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5-24〉 농업부문의 민감품목 분류

구 분	적용 예	품 목
초민감품목 (1)	관세철폐 예외	미곡
고민감품목 (8)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 예외 등 최소 감축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콩, 참깨
민감품목 (13)	관세철폐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	인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토마토, 딸기, 오이, 감자, 땅콩, 상추, 옥수수
저민감품목 (17)	중기적 관세 철폐	화생, 파, 고구마, 수박, 소맥, 시금치, 양배추,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들깨, 생강

그러나 NAFTA의 경험, 특히 멕시코 사례를 볼 때 경쟁력에 근거한 특화전개로 취약 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효과보다 FTA에 따른 교역량증가 효과가 더 지배적이어서, 소규모 국가의 경우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물론 취약 농산물에도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세계에서는 좀 더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FTA 체결 전에 추정된 피해액에 근거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신청이 생각보다 적었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농가지원 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 FTA 결과 특화전개보다는 교역량 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가피해가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에 근거하여, 국내 농업생산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역지수만 사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해보기로 한다. 물론 경쟁력지표만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도 역시 FTA 체결국간 경쟁력 차이를 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감품목 선정체계와 다르지 않겠지만,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미칠 과장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농업 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 제1품목군(경쟁력강 품목군): 경쟁력이 커서 즉시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 후보군
- 제2품목군(경쟁력약 품목군): 제1품목군보다 경쟁력이 작으나, 제3품목군 보다는 커서 조건부로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
- 제3품목군(경쟁력취약 민감품목 후보군)
- 제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 사회안전망 개념의 민감품목 후보군):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이 워낙 없어 FTA에 따른 추가적 무역자유화에도 큰 변화가 없는 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이나, 농업의 경우 제3품목과 함께 민감품목 후보군임. 사회안전망에 의한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개방검토가 가능한 품목임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한·중 간의 경우 1품목군(경쟁력강 품목군)으로 수박 및 사과·배 등 2개 품목만 선정되었고, 인삼이 2품목군(경쟁력약 품목, 조건부 자유화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역시 생강, 쌀, 담배가 민감품목군(경쟁력취약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닭고기, 낙농품(우유), 토마토, 양파, 오이, 감귤, 복숭아, 차를 포함한 26개 품목이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보호대상 후보품목군)으로 분류되었다. 4품목군이 32개 품목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 중 수입 비중은 무려 94.2%이며, 제3품목군(민감품목군, 경쟁력취약 품목)의 수입비중은 1.5%로 이 두 품목군의 합계비중은 95.7%에 달한다.

〈표 5-25〉 한·중 품목군 분류 결과

구 분	품 목
1품목군 (경쟁력강 품목)	수박, 사과·배
2품목군 (경쟁력약 품목)	인삼
3품목군 (민감품목군)	생강, 쌀, 담배
4품목군 (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보호대상 후보품목군)	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우유), 계란, 천연꿀, 감자,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고구마, 바나나, 감귤, 포도, 복숭아, 커피, 차,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땅콩, 식물성유

## 2) 경제적 파급효과

대중무역구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2000년 14억 500만 불에서 2007년엔 31억 70만 불로 갑절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농축산물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13.1%에서 19.2%로 증가하였다. 쌀과 고추·콩·당근·김치 등 곡물류와 채소류의 수입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반해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은 2007년 기준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의 10분의 1이 안 되는 2억 9,460만 불에 불과하다. 그나마 수출품도 설탕류·라면·소스류·커피조제품·비스킷 등 대부분 수입 농산물을 가공한 것들로, 농축산물 수출이 우리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우리가 우위에 있던 품질 경쟁력 격차도 점차 줄어들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농업생산기반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경제연구원(2010)은 FTA 발효 10년 뒤에도 현재의 동식물 검역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중 FTA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중 민감품목 12%를 제외할 경우에는 농업생산액은 4,354억이 감소하고,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 관세 철폐할 경우에는 2조 338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농산물 중 12%를 개방에서 제외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DD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품목이 12% 내외인 점을 고려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같은 조건에서 검역규제가 해제될 경우 농업생산액 감소폭은 4,928



억~2조 3,5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즉 개방 수준에 따라, 또 검역규제의 해제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확연히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 중국산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는 구제역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상태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또 과실파리 등의 병해충 때문에 사과·배·포도 등의 신선과일류 수입도 막혀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검역규제의 해제 여부에 따라 받게 될 최대 피해액을 3,247억 원으로 추정했다. 또 피해 대부분이 축산물·과일류·채소류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2009)의 결과를 토대로 전북 농업부문 피해액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한·중 FTA에 따른 전북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최소 540억 원에서 최대 2,9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나리오1(12% 민감품목 관세부과, 검역규제)의 경우에는 약 54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며, 시나리오2(쌀 제외 관세철폐, 검역규제)의 경우에는 약 2,522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한다. 시나리오3(12% 민감품목 관세부과, 검역해제)의 경우에는 약 611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며, 시나리오4(쌀 제외 관세철폐, 검역해제)의 경우에는 약 2,925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한다.

<표 5-26> 한·중 FTA에 따른 전북 농업 생산감소액

(단위 : 억 원)

구 분	국내생산 감소액 <sup>1)</sup>	전북생산 감소액 <sup>2)</sup>	비 고
시나리오1	4,354	540	관세 - 12%제외 검역 - 계속규제
시나리오2	20,338	2,522	관세 - 쌀제외 철폐 검역 - 계속규제
시나리오3	4,928	611	관세 - 12%제외 검역 - 해제
시나리오4	23,585	2,925	관세 - 쌀제외 철폐 검역 - 해제

참고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2010)

2) 전북생산감소액 = 국내생산감소액 \* 전북 농업 비중(12.4%)

시나리오4에 의한 한·중 FTA에 따른 품목별 전북 농업생산액 감소를 추정하면 <표 5-27>과 같다. 품목별 생산액감소는 곡물이 1,3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작목이 650억 원, 채소 579억 원, 축산 22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감소 비율은 특작이 13.9%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채소 9.8%, 곡물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약 2,974억 원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전북농산물 생산액의 약 5.8% 수준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 FTA에 따라 전라북도는 곡물, 채소, 특작 농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과 축산 농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한·중 FTA에 따른 품목별 농업 생산감소액

(단위 : 억 원)

품목	국내 생산감소액 <sup>1)</sup>	전북비중 <sup>2)</sup>	전북 생산감소액 <sup>3)</sup>	전북생산액	생산감소 비율 <sup>4)</sup>
곡물	8,781	15.5%	1,361	15,330	8.9%
채소	7,151	8.1%	579	5,900	9.8%
과일	1,305	3.4%	44	1,200	3.7%
축산	1,884	12.1%	228	17,820	1.3%
특작	1,310	8.5%	111	800	13.9%
기타	3,153	20.6%	650	10,290	6.3%
전체	23,585	-	2,974	51,350	5.8%

참고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2010)

2) 전북비중 = 전북생산액/국내생산액

3) 전북 생산감소액 = 국내 생산감소액 \* 전북 비중

4) 품목별 생산감소 비율 = 전북 생산감소액 / 전북생산액

## 제 2 절 농업·농촌 부문 기본 대응방안

### 1. 전라북도 농업의 기본방향

#### 1) 농업부문 영향 인식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 검토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내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 체결 시 많은 품목에서 일방적인 중국의 수출 확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이다.

- 중국 동북부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교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 중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를 크게 상회하여 규모의 효과를 보이면서 일방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하여 국내 농업시장을 잠식할 경우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지수 분석에 위하면 농업 내부에서 상호 협력적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일방적인 경제적 과급효과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력 및 토지 등 자원이 타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완전 농업 개방에 집착하는 경우 정치적 리스크 및 사회보장성격의 농민 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 FTA 타결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FTA 논의 시 농업부문 개방을 FTA 추진의 제약조건으로 인식한 후 FTA를 통한 국민경제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중국 농업제품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고품질화로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유지시키는 구조조정전략, 즉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화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된다. FTA는 양자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을 갖는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이익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 내에서의 협력증대와 이에 따른 이익확대가 FTA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여가와 휴식의 장 제공, 전통과 문화, 국토환경보전이라는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최고정책 관리자의 관심과 국민의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FTA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2) 한·중 FTA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한·중 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도내 농업주체들 간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산·학·관·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한·중 FTA로 인한 지역별·품목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연구를 수행
- 전라북도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시군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협의기구 또는 대책반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 마련

## 2.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1) 맞춤형 영농구조 개선

한·중 FTA로 인한 수혜업종이 기계부품,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전라북도 서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여타 지역과의 경제력 격차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 FTA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라북도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우선 개별 농가별로 경영주체, 소득규모, 생산품목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한 이후,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로 영농형편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실시
- 구체적으로 전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되, 은퇴·경작포기·파산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인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유도
-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보상지원과 함께 생산 및 사육 제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함
- 시군별로 특화된 농업·농촌자원에 근거한 지역산업정책 수립측면에서 기존의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이 주산업인 동부권을 대상으로 한 ‘동부권 특별회계’를 한·중 FTA 대응과 연계시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곡물, 채소, 축산 등 피해부문의 지원

한·중 FTA로 인한 전라북도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은 연 평균 최대 2,974억 원으로 전라북도 전체 농림어업생산액(2010년 전라북도 농림어업 생산액 5조 1,350억 원)의 5.8%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피해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 한·칠 FTA 체결 이후 과수부문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식량작물, 특용작물,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뿐만 아니라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도 차원에서 파수 및 축산부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곡물,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에 대해서 도차원의 별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재정지원은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 피해품목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

전라북도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계수가 높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농업의 핵심 작목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후, 지역의 입지조건과 비교우위성을 검토하여 유망작목을 발굴하되, 이를 지역특산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 농산물 시장 전체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력화, 수확 후 관리기술,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산학관연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모화와 노동투입비용절감을 위해 농작업의 공동화나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생력화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품 혁신지원으로 새로운 품종개발, 틈새시장 개척, 고부가가치형 농산물 가공, 수확 후 관리기술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마케팅 혁신 지원으로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수직계열화 방향으로 농업경영구조를 전환해야 하며, 끝으로 산업 융복합화 차원에서 농촌관광과 특산품 판매 등을 상호 연계하는 6차 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 도 및 시·군, 농협, 농민들과 함께 합심하여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

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3. 대 중국 농산물 수출전략

중국에 대한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중국사회의 공식적인 제도와 법령은 물론 비공식적인 관행과 규제의 배경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사회의 핵심계층인 당 및 관료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 전라북도의 신선 및 가공농산물의 목표시장을 중국 내 고소득 계층으로 구분하고 품질 및 안전성 제고와 기능성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전라북도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중국내 소비자 신뢰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제고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산·관·학 공동 시장조사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 중국 소비자들의 고급화 선호 취향을 감안하여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수출 농산물의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중국 내 유통망을 확충하여 소비자들이 전라북도 농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의 중국 내 점포망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고급 백화점 등 유통회사와 제휴하여 전라북도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고소득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새만금과 연계하여 네덜란드와 같은 중계가공무역을 전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외부로부터 저렴하게 수입되는 농축산 원재료의 가공을 통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확대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공격적인 수출전략 시행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 1위인 파프리카 등 원예작물의 ‘수출주력 상품화’가 시급하며, 이미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고 전업화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화훼, 시설채소, 김치 등도 수출 상품화 노력이 필요하다.
- 수출농업단지의 규모화·전문화를 도모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컨설팅실시, 전담 지도사 배치, 재배지 검역서비스제공, 물류비와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후 관리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 해외시장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시키고 국제 농산물박람회나 식품전시회 등의 참가 방식을 개선하여 전라북도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
- 산지의 예냉·선별·포장·수송 등 수출물류 시스템을 일관적으로 연계하여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인 농산물 수출보험, 관세 환급, 자조금 제도 등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농산물 수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품목별 대응방안

##### 1) 곡물

- 중국과 FTA를 체결할 때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양허할 경우 기타 곡물분야에서 매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경쟁 제한적 정책으로 국유기업의 주요 곡물 수출입 비중이 높다. 따라서 곡물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경우 민감품목들이 최대한 양허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곡물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곡물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함과 동시에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 2) 채소

- 채소류는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 약용작물의 경우 품질차이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적으나, 가공원료, 인삼 엑기스 형태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 유통계열 확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과실의 경우 품질고급화 추진 및 브랜드화를 통해 소비자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생산·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당도가 높은 과실 생산을 위한 비가림 시설 재배면적 확대해야 한다.

### 3) 축산

#### (1) 양돈분야

- 우량 종돈 선발 및 축사 현대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
- 우수 경영체 육성 및 계열화 추진을 통한 양돈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진안 감도야, 남원 흑돈클러스터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과 연계·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함께 전라북도의 고품질 양돈 브랜드 이미지 구축

#### (2) 낙농분야

- 생산비절감과 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사료작물, 총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 지원 등을 강화
- 기능성 유제품 개발 지원 및 우유소비 확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우유 소비를 촉진
- 임실읍을 중심으로 치즈특구로 조성하여 치즈거리, 임실치즈시장 개설, 경관초지 등을 조성하여 임실치즈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전라북도 낙농산업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 특히 임실치즈를 기존 대형업체와 차별화된 고품질 수제치즈 중심으로 육성하고,

목장단위 낙농 체험·관광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 (3) 육계분야

- 계열업체 중심의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사육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도·교육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질병관리 효율화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 제 6 장



## 결 론



## 제 6 장 결 론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FTA가 체결되어 무역과 투자 장벽이 제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중 FTA는 한국의 농수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이 분포하므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뿐 아니라 기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며 FTA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safety net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한·중 FTA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력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세계시장 및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를 점하는 품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감품목의 선정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품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FTA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FTA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이나 수출의 증가보다는 수입의 증가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3에 의하면 전체적인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역수지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편, 석유화학 산업 또한 교역은 대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화합물을 포함한 석유화학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유를 포함한 특정품목 위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의하면 섬유산업의 수출과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은 품목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과 수입이 각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생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은 신소재의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만 FTA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성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 수요자에 수요에 맞는 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로 인한 효과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중 FTA의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중 FTA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FTA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에 대한 지원,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분야 대부분의 기업은 독자적인 마케팅 역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국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사회시스템이 상이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유통망의 확보가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므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유통망의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전북과 중국기업 간 투자유치 및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 될 것이므로 이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북기업과 중국기업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업이 더 이상 비용 비교우위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고부가가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라북도와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FTA로 인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결성이 중요하므로 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투자유치 및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R&D의 확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부분 가공무역이어서 산업 내에서 분업을 이룰 수 있는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전북 기업 및 산업의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피해분야의 연락처를 위한 지원과 적극적 관점에서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구조조정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FTA는 인적 물적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므로 기존에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일부 성공적인 진출을 한 것을 벤치마킹 삼아 전북에서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및 중국 기업과 연계한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접 수요자들로 부터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시장을 진출할 때 중국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은 다른 도전이 있겠지만 하나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지원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그리고 중국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대륙은 지역별로 특성이 뚜렷하여 만일 한 기업이 서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전북에서 유학을 하고 본국에 돌아갔으므로 이들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출 및 기업지원전략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DB화 작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국은 전북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이므로 수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

소기업에 필요한 중국의 시장동향, 무역규제사항, 국제통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농업분야에서의 민감품목의 분류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FTA 체결 전에 추정된 피해액에 근거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신청이 생각보다 적었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농가지원 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 FTA 결과 특화전개보다는 교역량 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가피해가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에 근거하여, 국내 농업생산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역지수만 사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표 6-1〉 한·중 품목군 분류 결과

구 분	품 목
1품목군 (경쟁력강 품목)	수박, 사과·배
2품목군 (경쟁력약 품목)	인삼
3품목군 (민감품목군)	생강, 쌀, 담배
4품목군 (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보호대상 후보품목군)	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우유), 계란, 천연꿀, 감자,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고구마, 바나나, 감귤, 포도, 복숭아, 커피, 차,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땅콩, 식물성유

한편, 농촌경제연구원(2009)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한·중 FTA에 따른 전라북도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최소 540억 원에서 최대 2,9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나리오1(12% 민감품목 관세부과, 검역규제)의 경우에는 약 54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며, 시나리오2(쌀 제외 관세철폐, 검역규제)의 경우에는 약 2,522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한다. 시나리오3(12% 민감품목 관세부과, 검역해제)의 경우에는 약 611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며, 시나리오2(쌀 제외 관세철폐, 검역해제)의 경우에는 약 2,925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한다.



〈표 6-2〉 한·중 FTA에 따른 전북 농업 생산감소액

(단위 : 억 원)

구 분	국내생산 감소액 <sup>1)</sup>	전북생산 감소액 <sup>2)</sup>	비 고
시나리오1	4,354	540	관세 - 12%제외 검역 - 계속규제
시나리오2	20,338	2,522	관세 - 쌀제의 철폐 검역 - 계속규제
시나리오3	4,928	611	관세 - 12%제외 검역 - 해제
시나리오4	23,585	2,925	관세 - 쌀제의 철폐 검역 - 해제

참고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2010)

2) 전북 생산감소액 = 국내 생산감소액 \* 전북 농업 비중(12.4%)

전라북도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계수가 높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농업의 핵심 작목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후, 지역의 입지조건과 비교우위성을 검토하여 유망작목을 발굴하되, 이를 지역특산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 농산물 시장 전체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력화, 수확 후 관리기술,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부담하기 보다는 산학관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모화와 노동투입비용절감을 위해 농작업의 공동화나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생력화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품 혁신지원으로 새로운 품종개발, 틈새시장 개척, 고부가가치형 농산물 가공, 수확 후 관리기술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마케팅 혁신 지원으로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수직계열화 방향으로 농업경영구조를 전환해야 하며, 끝으로 산업 융복합화 차원에서 농촌관광과 특산물 판매 등을 상호연계하는 6차 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도 및 시·군, 농협, 농민들과 함께 합심하여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

나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 1위인 파프리카 등 원예작물의 ‘수출주력 상품화’가 시급하며, 이미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고 전업화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화훼, 시설 채소, 김치 등도 수출 상품화 노력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농산물의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칠 FTA 체결 이후 과수부문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식량 작물, 특용작물,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도 차원에서 과수 및 축산부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축산 및 과수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과 품목에 대해서 도차원의 별도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콩, 보리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부문에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별로 구조조정이 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중 FTA로 인한 지역별·품목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도내 경제주체들 간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별, 품목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협의기구 또는 대책반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국제무역연구원, 2008,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양평섭 외, 2007,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어명근 외, 2006, “중국의 농산물 수입 중장기 전망”, R5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201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주요내용”  
이장규 외, 2008,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미진 외, 2008,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농촌통계연감, 2005, 전국농업통계적요  
중국무역통계사이트(china.kita.net)  
최용민, 2010,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국제무역연구원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농림업생산지수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농업조사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중 FTA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目 次





# 부록 1. 전북의 수출액

(단위 : 천불)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2,881,057	2,219,613	1,943,083	2,866,130	4,224,538	4,850,995	5,470,985	6,354,452	6,842,081	6,032,293
02	육,식용살육	8,605	4,758	2,165	1,157	116	531	733	1,341	3,028	3,281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383	860	384	3,776	5,506	446	1,107	935	671	1,313
04	낙농품,조란,천연꿀,기 타 식용의 동물성생산 품	5	0	0	58	60	203	1	1,527	1,670	2,191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375	271	143	12	42	291	328	137	265	191
06	산수목,기타 산식물,구 근류,절화,장식용 잎	2,751	1,302	1,022	4,309	4,494	4,805	8,153	5,966	5,892	17,666
07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5,141	11,179	8,163	10,574	9,835	9,812	9,879	9,266	9,596	10,038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 류,감귤류 또는 멜론 의 껍질	1,054	955	2,229	1,739	4,226	7,584	3,513	6,345	5,066	6,132
09	커피,차,마테,향신료	427	521	93	175	358	134	126	94	214	392
10	곡물							0	589	208	1,880
11	제분공업생산물,맥아, 전분,이눌린,밀의 글루 우텐	15	24	9	76	3	215	351	265	59	96
12	채유용 종자,과실,각종 종자,과실,공업용,의약 용식물,절,사료식물	3,039	2,710	2,383	2,421	4,183	6,391	9,408	8,697	12,486	11,812
13	락,검,수지,기타 식물 성 액즙과 엑스	374	368	240	439	1,484	1,639	1,310	2,475	1,083	754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 료,기타 식물성생산물	15	2	6	8			0	0	5	5
15	동식물성 유지,이들의 분해생산물,조제식용 지,동식물성의 납	136	3	22	69	14	69	60	1,090	447	42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 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373	327	484	632	677	1,404	1,086	954	1,156	1,380
17	당류와 설탕과자	409	174	87	132	361	469	519	3,904	290	161
18	코코아,코코아조제품	75	133	86	320	462	559	288	187	150	34
19	곡물,곡물분,전분,밀크 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0,737	9,630	8,804	9,445	9,387	9,783	8,256	10,068	13,562	14,279
20	채소,과실,견과류,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 품	1,931	1,021	282	402	551	912	2,173	2,593	4,785	4,932
21	각종 조제식료품	5,468	5,531	4,865	6,072	10,418	14,097	9,847	8,951	11,818	15,100
22	음료,알코올,식초	3,683	3,415	3,672	4,298	7,091	6,108	6,105	6,717	6,191	6,602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 유물과 웨이스트,조제 사료	3	264	232	505	374	462	370	166	742	493
24	담배,제조한 담배대용 물	35	87	58	23	130	380	166	72	40	29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609	1,054	344	216	198	280	162	159	369	114
26	광, 슬랙, 회									108	0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29	126	130	195	332	1,004	1,499	1,177	1,072	1,442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회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 화합물	9,542	9,435	9,469	10,750	17,487	27,645	30,562	44,566	57,480	531,671
29	유기화학품	232,663	222,735	217,406	255,997	318,102	363,080	318,686	331,173	415,609	382,711
30	의료용품	3	14	114	1,119	2,046	1,467	2,520	3,405	2,542	3,583
31	비료	15	15	45	19	930	1,260	1,130	2,151	4,123	1,819
32	유연, 염색액,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페티, 잉크	1,960	1,280	1,668	3,193	3,481	3,097	3,619	6,199	15,690	8,906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품용품류	1,821	985	534	682	970	1,153	914	814	3,916	2,615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2,763	3,125	4,276	6,679	5,158	5,839	6,572	8,767	13,380	19,135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우, 효소	446	688	478	541	1,397	1,041	653	826	898	672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0	15	7	0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257	3,664	4,204	2,141	2,785	2,975	2,907	3,328	3,473	2,880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2,348	14,197	30,875	25,493	26,766	37,299	69,947	91,418	152,952	235,12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81,820	172,653	208,831	245,035	323,788	419,746	435,534	530,099	558,806	431,572
40	고무와 그 제품	4,559	5,821	8,709	7,502	10,417	9,623	8,407	8,315	9,554	27,281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647	971	225	108	86	200	445	141	20	81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488	366	222	159	77	74	114	10	4	59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696	640	547	608	218	158	271	119	90	69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1,986	6,918	6,639	8,628	14,849	11,550	6,250	9,320	6,658	4,330
46	질,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282	49	136	0	8	11	60	402	0	3
47	목재 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46	934	16	1	1			4	139
48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207,800	160,625	104,630	165,421	229,158	232,203	244,527	216,752	280,399	232,272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68	86	173	113	34	34	8	45	23	64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0	건	4,015	3,941	4,718	5,985	11,876	10,682	11,138	6,697	5,312	3,630
51	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162	58	32	398	34	270	308	531	928	1,004
52	면	3,386	5,316	4,831	2,668	3,460	3,297	2,601	3,815	5,998	5,169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2	50	1	0			12	6	5	1
54	인조장섬유	53,234	52,286	50,274	51,885	57,046	57,456	56,394	59,234	67,039	62,401
55	인조단섬유	139,175	140,706	156,903	190,517	222,595	201,981	205,758	231,651	192,300	158,973
56	위딩,펠트,부직포,특수사,끈,코오디지,로페스,케이블과	1,455	1,063	1,794	2,659	2,648	3,388	2,586	9,646	9,861	5,685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갈래	2	0	49	8	0	14	6	0	0	285
58	특수직물,더후트한 섬유직물,레이스,테피스 트리,트리밍과 지수포	1,507	1,434	1,573	1,124	969	779	612	645	659	1,086
59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	2,816	1,490	3,187	1,574	2,317	1,461	329	1,125	2,039	1,111
60	메리아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5,418	6,408	5,748	7,044	5,340	4,515	5,017	2,677	1,482	1,288
61	메리아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41,936	36,232	32,988	29,332	35,296	37,587	43,678	44,238	49,367	27,566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아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 제외)	7,217	6,323	5,675	4,555	6,503	6,882	5,210	2,022	1,949	919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세트,종고의류,종고 방직용섬유제품,닝마	2,085	1,715	2,469	1,612	1,633	1,314	6,416	1,959	1,304	1,920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70	47	43	4	76	218	439	129	255	95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378	287	93	19	25	1	16	4	64	151
66	산류,지팡이,시트스틱,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0	0	0	13	0	3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조화,인모제품	26	46	29	8	0	5			0	1
68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4,117	2,913	2,699	2,768	2,766	3,730	3,991	5,462	4,783	3,123
69	도자제품	511	806	1,625	591	940	369	332	304	967	764
70	유리와 유리제품	58,670	45,282	41,518	51,072	63,152	75,714	62,785	63,357	30,698	12,336
71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주화	63,474	70,889	63,063	92,407	82,470	66,508	53,898	42,969	45,526	57,676
72	철강	32,057	54,918	58,265	71,005	90,341	136,554	202,920	307,562	365,075	128,472
73	철강의 제품	6,747	3,893	4,348	4,594	5,489	8,857	18,922	34,543	60,134	38,526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74	동과 그 제품	29,531	24,915	48,697	54,856	65,346	80,904	143,973	177,055	137,790	117,945
75	니켈과 그 제품	0	7	0	0	0	1	34	55	4	0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277	1,101	5,145	2,686	2,611	1,655	2,493	1,527	3,528	7,477
78	연과 그 제품	55	92	93	21	213	29	37	99	0	7
79	아연과 그 제품	3	11	2	0	5	0	1	0	0	425
80	주석과 그 제품	75	12	40	55	208	117	263	436	347	99
81	기타 비금속, 세메트, 이들의 제품	1,160	1,688	1,355	1,380	1,644	3,068	1,477	553	846	1,968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펀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42,772	30,580	24,844	23,488	25,609	18,425	3,932	1,808	1,029	542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229	289	210	151	1,482	508	887	496	1,829	2,114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77,907	245,493	77,014	95,686	124,407	194,880	275,441	384,886	221,034	159,586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12,032	251,365	233,050	246,170	281,763	242,905	267,976	305,054	335,406	462,919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11	1	14	32	10	122	17	45	487	3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품과 부속품	956,906	568,702	465,003	1,127,663	2,097,888	2,491,992	2,876,662	3,303,056	3,657,469	2,747,679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150	0	51	273					0	1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0	430	185	610	2,098	378	3,142	2,303	1,954	1,205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286	2,388	3,272	4,875	3,438	2,095	3,383	16,466	17,167	18,388
91	시계와 그 부분품	32	2	21	68	18	39	3	0	0	0
92	약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	5	1	2	0	7	2	0		
93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71	903	1,564	1,531	1,606	3,150	4,740	5,578	6,448	9,982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시인, 조립식 건물	886	1,051	430	490	289	161	1,303	409	450	827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34	146	269	188	328	214	293	359	248	379
96	잡품	7,347	5,298	3,715	2,774	2,526	2,704	2,980	4,161	3,701	3,192
97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0	1	164	47						
99	-					15	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참고 : HSK 2단위 기준 코드

## 부록 2. 전북의 수입액

(단위 : 천불)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1,501,319	1,502,915	1,599,851	2,042,837	2,522,398	2,456,326	2,547,563	3,063,108	4,103,871	3,193,849
01	산동물	897	745	2,676	1,748	1,569	1,057	1,362	1,808	1,662	1,759
02	육,식용살육	1,160	140	873	2,359	1,089	1,014	782	2,652	4,957	1,849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4,695	15,366	24,993	22,870	26,301	22,030	30,679	30,925	40,264	26,088
04	낙농품,조란,천연꿀,기 타 식용의 동물성생산 품	5,328	4,746	4,373	4,038	5,760	5,375	5,773	6,680	42,209	40,794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3,298	983	854	549	1,126	972	926	1,234	1,013	703
06	산수목,기타 산식물,구 근류,절화,장식용 잎	428	455	814	968	530	944	1,646	1,543	1,105	1,693
07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12,503	15,291	7,467	13,281	22,501	18,917	19,417	20,732	66,391	46,252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 질	205	231	635	1,232	1,667	1,223	1,545	1,314	845	882
09	커피,차,마테,향신료	1,012	1,551	939	1,212	1,499	1,409	70	67	95	228
10	곡물	91,523	96,445	125,919	150,064	231,964	239,878	269,694	379,774	429,590	275,235
11	제분공업생산물,맥아,전 분,이눌린,밀의 글루우 텐	491	451	547	551	264	170	477	1,582	721	163
12	채유용 종자,과실,각종 종자,과실,공업용,의약 용식물,질,사료식물	4,885	5,184	5,271	5,403	7,487	10,034	14,581	11,692	14,945	13,688
13	락,검,수지,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53	55	121	156	119	103	44	48	76	17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704	705	993	553	737	1,324	1,354	1,199	1,142	1,253
15	동식물성 유지,이들의 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5,201	2,789	3,875	3,525	6,899	4,641	8,611	16,020	25,102	21,886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 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397	502	692	700	1,359	1,621	2,695	4,378	3,218	2,099
17	당류와 설탕과자	35,318	55,947	48,012	44,943	45,896	59,295	44,471	29,242	55,071	59,686
18	코코아,코코아조제품	68	0	418	758	374	421	626	492	527	595
19	곡물,곡물분,전분,밀크 의 조제품,베이커리제 품	422	541	642	751	832	820	983	1,075	1,402	1,319
20	채소,과실,견과류,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 품	252	118	751	699	920	2,092	3,080	4,163	4,091	3,109
21	각종 조제식료품	2,184	2,829	3,243	7,939	10,623	8,447	9,055	13,792	11,394	6,700
22	음료,알코올,식초	10,321	14,483	16,124	19,032	19,351	24,848	28,870	31,115	44,477	27,472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 유물과 웨이스트,조제 사료	42,805	59,916	65,319	67,748	100,205	79,143	94,974	128,201	200,205	188,501
24	담배,제조한 담배대용 물	0	83	0	0	0	10	6	0	0	27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11,948	12,043	9,206	17,310	33,030	37,878	31,793	35,299	49,548	30,548
26	광, 슬랙, 회	20	11	0	177	3,732	5,633	15,053	8,530	8,137	5,937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침물질, 광물성악스	1,480	1,641	26,727	96,551	80,070	12,180	1,220	1,586	2,192	1,522
28	무기화합품, 귀금속, 회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34,974	36,515	34,772	45,707	56,588	59,791	61,757	71,298	152,128	111,203
29	유기화합품	188,145	220,067	232,568	269,613	330,820	386,240	322,570	369,012	393,610	375,791
30	의료용품	1,696	2,021	2,211	3,727	4,527	5,226	3,907	5,105	4,971	2,491
31	비료	1,251	557	505	541	962	1,003	1,446	2,742	2,841	3,820
32	유연, 염색액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페타, 잉크	26,066	25,451	24,894	32,453	33,631	30,566	30,640	33,686	32,757	31,031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1,251	1,084	1,126	1,173	2,659	3,935	3,852	4,660	1,743	1,345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7,127	7,751	7,568	8,124	9,656	10,392	10,336	10,052	11,183	9,354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우, 효소	3,108	4,195	5,031	4,676	3,823	3,727	5,552	6,742	7,942	6,782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9	222	417	371	425	505	397	355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7,089	5,967	6,086	5,883	4,619	6,053	5,164	7,793	14,727	27,367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44,886	40,561	44,360	44,362	55,067	86,758	100,686	117,667	149,409	126,276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12,768	89,247	82,828	82,695	84,776	68,784	79,138	86,009	88,449	83,997
40	고무와 그 제품	3,704	5,879	7,591	10,722	14,475	14,052	13,849	14,621	12,681	9,633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3	38	8	1	1	144	139	27	1	0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155	88	140	114	337	203	446	610	1,002	570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1,482	1,621	1,884	1,267	265	324	329	155	215	531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64,777	77,497	93,613	102,341	117,211	107,178	126,816	156,182	141,295	104,092
45	코르크와 그 제품	10	13	0	22	0	10	1	4	0	0
46	질,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455	414	364	369	570	514	594	866	1,575	976
47	목재 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160,801	133,134	126,073	139,469	181,212	147,454	114,683	123,304	143,618	98,621
48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7,215	10,890	17,163	17,242	18,769	18,435	12,424	12,817	10,630	8,804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228	223	369	536	366	257	379	443	308	450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0	건	4,108	3,453	3,003	3,654	7,335	7,733	8,450	3,592	3,209	2,455
51	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시 및 이들의 적물	1,774	753	1,287	2,314	531	630	390	772	39	43
52	면	85,769	79,642	71,653	79,726	91,475	62,854	63,268	55,657	64,258	51,177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적물	548	609	325	163	393	675	1,180	1,042	955	342
54	인조장섬유	1,607	3,408	5,668	8,688	8,127	5,243	14,504	15,218	18,685	6,899
55	인조단섬유	6,611	7,938	11,263	11,954	10,868	8,746	12,002	10,462	12,830	14,806
56	위딩,펠트,부직포,특수사,끈,코오디지,로페스,케이블과	469	1,887	981	1,201	1,062	791	668	897	955	598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갈래	16	2	15	32	9	0	15	65	14	4
58	특수직물,더후트한 섬유직물,레이스,테피스트리,트리밍과 자수포	4,450	2,589	2,782	4,332	2,679	2,211	1,553	202	141	348
59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공업용 의방직용 섬유제품	4,424	6,320	4,990	5,566	6,192	5,474	5,816	7,426	6,327	5,993
60	메리아스편물과 뜨개질편물	512	566	5,302	4,536	1,402	1,283	1,631	784	993	1,067
61	메리아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3,115	1,115	1,132	3,070	3,087	4,580	4,356	3,338	1,745	5,040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아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2,808	3,311	4,919	4,485	4,882	4,908	5,762	11,237	9,476	5,734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세트,종고의류,종고 방직용섬유제품,넝마	68	101	599	704	154	156	381	794	1,299	1,602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48	20	280	377	203	166	241	1,170	1,192	529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77	140	88	12	57	27	26	86	42	43
66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9	771	264	36	105	173	104	321	305	62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조화,인모제품	1	2	9	10	21	15	26	102	75	20
68	석·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3,967	4,649	14,341	12,553	13,485	15,516	20,384	25,039	24,093	15,689
69	도지제품	2,613	4,973	9,447	2,515	5,104	7,104	7,086	15,409	11,411	4,602
70	유리와 유리제품	5,626	9,780	39,474	29,208	36,611	55,278	16,731	16,806	48,472	35,220
71	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모조신변장식용품,주화	21,394	30,250	22,204	21,912	23,571	20,878	10,247	10,345	9,496	13,266
72	철강	41,899	16,846	21,078	31,565	89,141	165,971	188,752	254,710	507,735	153,625
73	철강의 제품	4,159	4,949	2,796	7,451	8,597	12,452	17,003	18,629	20,546	28,263
74	동과 그 제품	5,553	4,357	4,904	1,037	1,885	1,371	5,640	19,226	56,487	72,943
75	니켈과 그 제품	256	556	91	807	92	159	6,777	7,651	58	341

코드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1,827	6,743	14,545	24,442	32,859	44,127	97,538	94,499	176,605	154,738
78	연과 그 제품	10	2	1	1	88	4	36	48	16	4
79	아연과 그 제품	4	2	2	25	8	29	50	29	1	3
80	주석과 그 제품	16	5	6	11	17	9	101	15	722	1,729
81	기타 비금속,서메트,이들의 제품	9,322	12,034	6,592	9,012	6,262	5,213	4,695	3,539	4,745	5,047
82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폰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1,788	2,048	1,836	1,556	1,928	1,922	2,557	2,023	2,607	2,041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50	719	566	774	887	664	976	953	1,788	1,440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97,322	113,172	93,575	227,259	254,296	228,798	260,574	349,863	405,047	351,126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13,582	165,648	149,025	191,733	253,455	197,210	184,050	193,157	282,719	334,072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5,276	6,223	4,910	3,193	6,274	6,851	297	1,105	5,555	3,38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2,460	15,303	30,946	57,579	84,737	51,357	70,592	123,129	126,339	105,298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37	94	35	12	0	42	2,486	182	22,560	4,383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458	2,535	1,974	11,376	1,073	1,062	154	667	33,129	12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9,012	29,978	21,661	38,406	33,090	36,284	36,507	38,773	50,204	36,099
91	시계와 그 부분품	12	11	61	181	82	38	68	121	87	54
92	약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11	136	98	62	13	29	52	102	134	77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9	6	188	0	3	1	0	0	37	261
94	가구와 침구,러그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물	857	1,242	2,353	1,195	1,860	2,992	5,317	9,596	5,259	6,490
95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86	616	1,013	909	730	598	1,197	1,706	1,174	849
96	잡품	831	867	868	776	996	1,788	2,072	2,909	2,418	2,279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17	30	4	12	4	13	317	261	21	264
99	-	43	50	51	37	11	3	18	7	2	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참고 : HSK 2단위 기준 코드



### 부록 3.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관세율

코드	품목설명	관세율
1~5	산동물및동물성생산물	11.99
6~14	식물성생산물	12.50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14.19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12.71
17	당류와 설탕과자	21.29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12.23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17.29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21.31
21	각종 조제식료품	19.88
22	음료, 알코올, 식초	21.74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5.27
24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31.25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3.05
26	광, 슬랙, 회	1.47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36
28	무기화합품, 귀금속, 희토류,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무기화합물	4.46
29	유기화합품	5.15
30	의료용품	4.62
31	비료	2.70
32	유연, 염색액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7.52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13.39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9.14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효소	9.17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8.62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11.51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6.87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47
40	고무와 그 제품	12.03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8.24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14.29
43	모피,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17.43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3.82
45	코르크와 그 제품	4.49
46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9.07
47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종이	0.00
48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판지의 제품	6.12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3.06
50	견	9.13
51	양모,섬수모,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7.92
52	면	10.22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9.51
54	인조장섬유	8.39
55	인조단섬유	10.31
56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8.50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13.26
58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레이스, 트리밍과 지수포	10.37

코드	품목설명	관세율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방직용, 섬유제품	9.90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10.26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5.88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15.86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14.00
64	신발류, 모자류, 신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16.71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16.24
66	신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11.78
67	조제 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21.38
68	석·플라스틱·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12.97
69	도자제품	11.50
70	유리와 유리제품	11.92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모조산변 장식용품, 주화	10.98
72	철강	4.88
73	철강의 제품	9.01
74	동과 그 제품	6.17
75	니켈과 그 제품	4.19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75
78	연과 그 제품	4.50
79	아연과 그 제품	4.73
80	주석과 그 제품	5.35
81	기타 비금속, 시멘트	5.08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9.68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11.01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7.07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7.95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5.02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7.72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2.12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7.58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7.13
91	시계와 그 부분품	15.49
92	약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5.45
93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3.00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5.36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86
96	잡품	19.52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00

자료 : 최용민, 2010,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국제무역연구원

참고 : HSK 8단위 기준 12,633개 품목을 2단위로 압축하여 단순평균한 것임

*Jthink* 2010-PR-25

## 한 · 중 FTA에 대한 전라북도 대응방안

---

발행인 | 원도연  
발행일 | 2010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

ISBN 978-89-6612-029-1 93320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